

KOREA

우리 국토의 인문환경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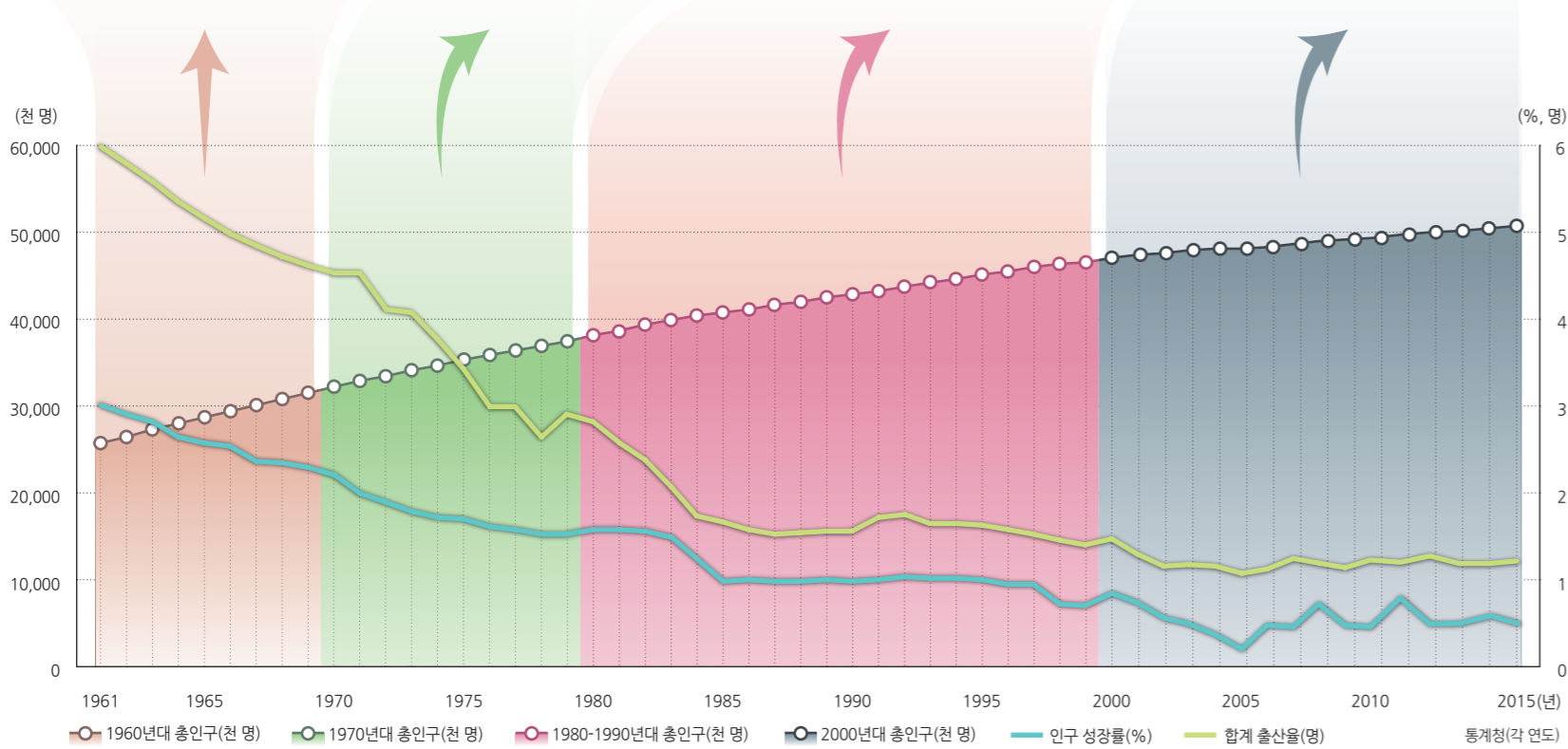
인구 변화

인구는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국가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특성을 집약적으로 반영한다. 인구 총조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외국인 포함)는 1949년 약 2,020만 명에서 2015년에는 5,106만 명으로 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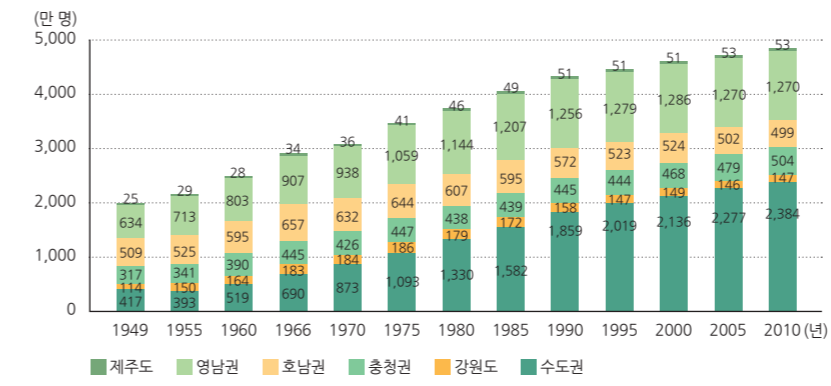
격히 증가하였다.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점점 낮아져 2015년에는 0.48%를 나타내고 있으며, 합계 출산율은 1980년대 중반 2명 미만으로 떨어졌고 현재는 1.2명 수준으로 낮아졌다. 우리나라 인구 변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

는 도시 인구, 특히 수도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2015년 현재 인구가 20만 명 이상인 전국 5개 도시 중 34개 도시가 수도권(22개 시)과 영남권(12개 시)에 밀집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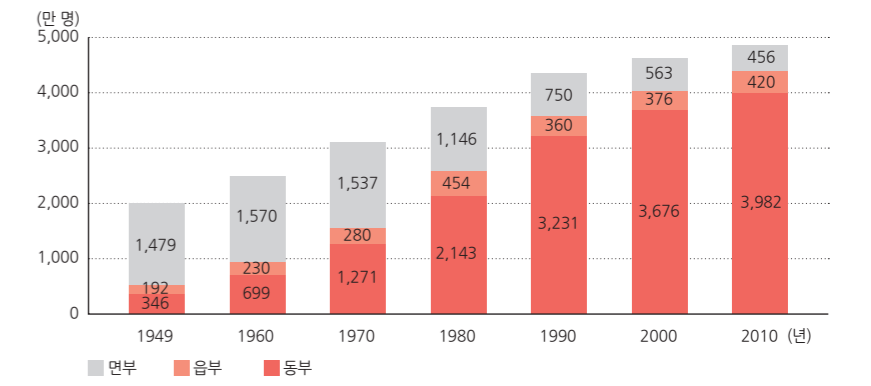
합계 출산율 변화와 인구 정책 포스터



권역별 인구



동·읍·면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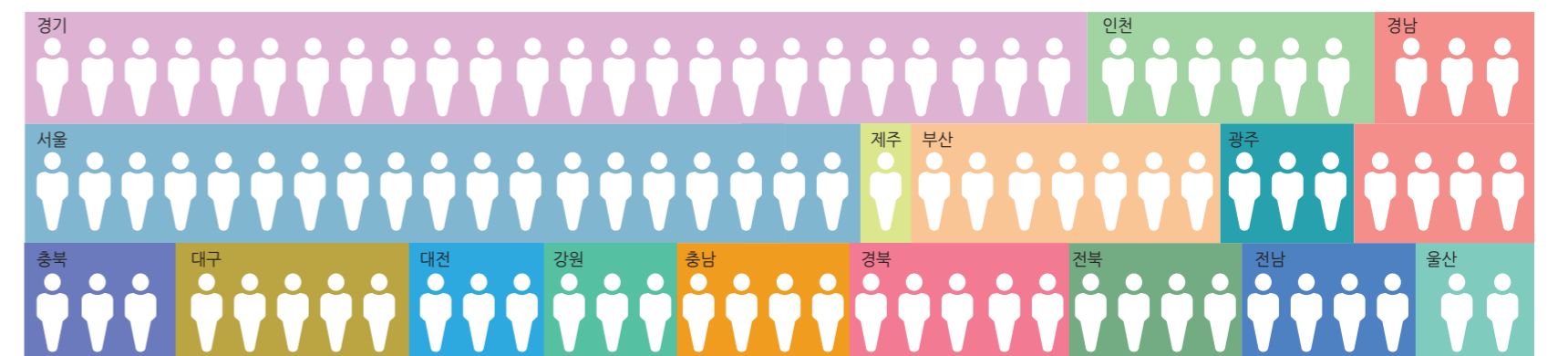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



연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전국 인구(명)	24,989,241	30,882,386	37,436,315	43,410,899	46,136,101	48,580,293
지도의 상대적 크기(% , 1960년 기준)	100	111.2	122.4	131.8	135.9	1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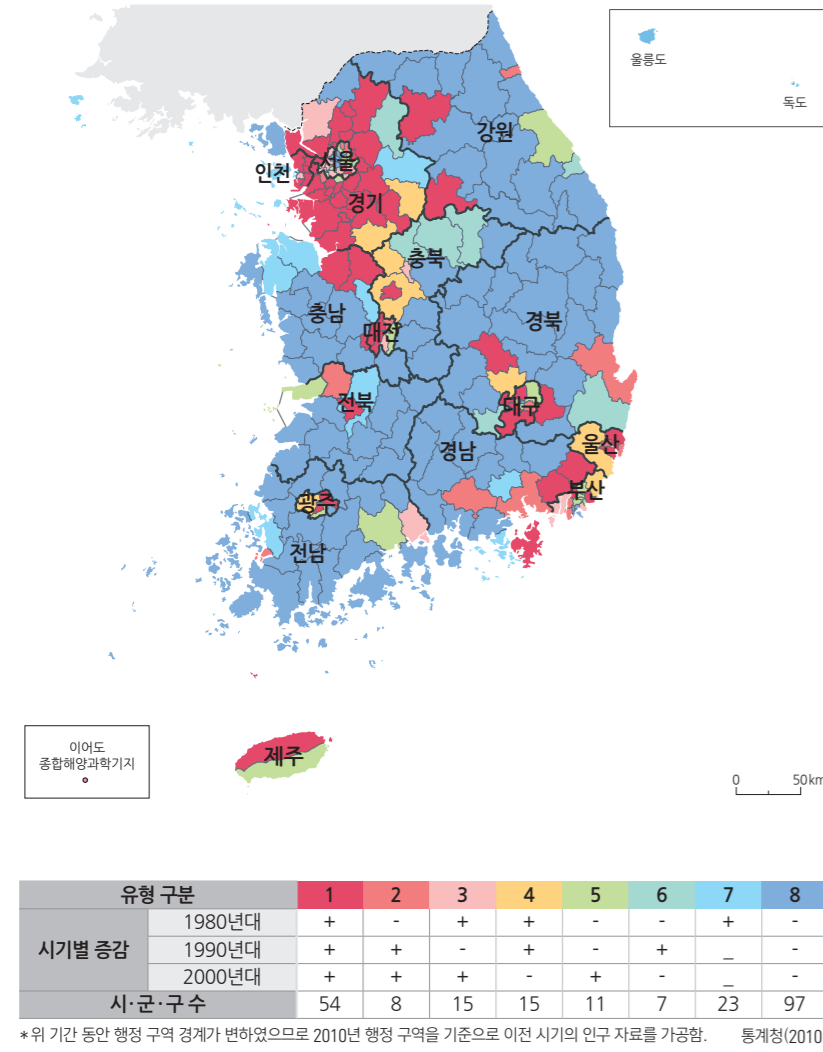
*1960년 인구를 기준으로 행정 구역의 크기를 인구에 비례하여 나타낸 지도로, 인구에 따른 지도의 상대적 크기는 표와 같음.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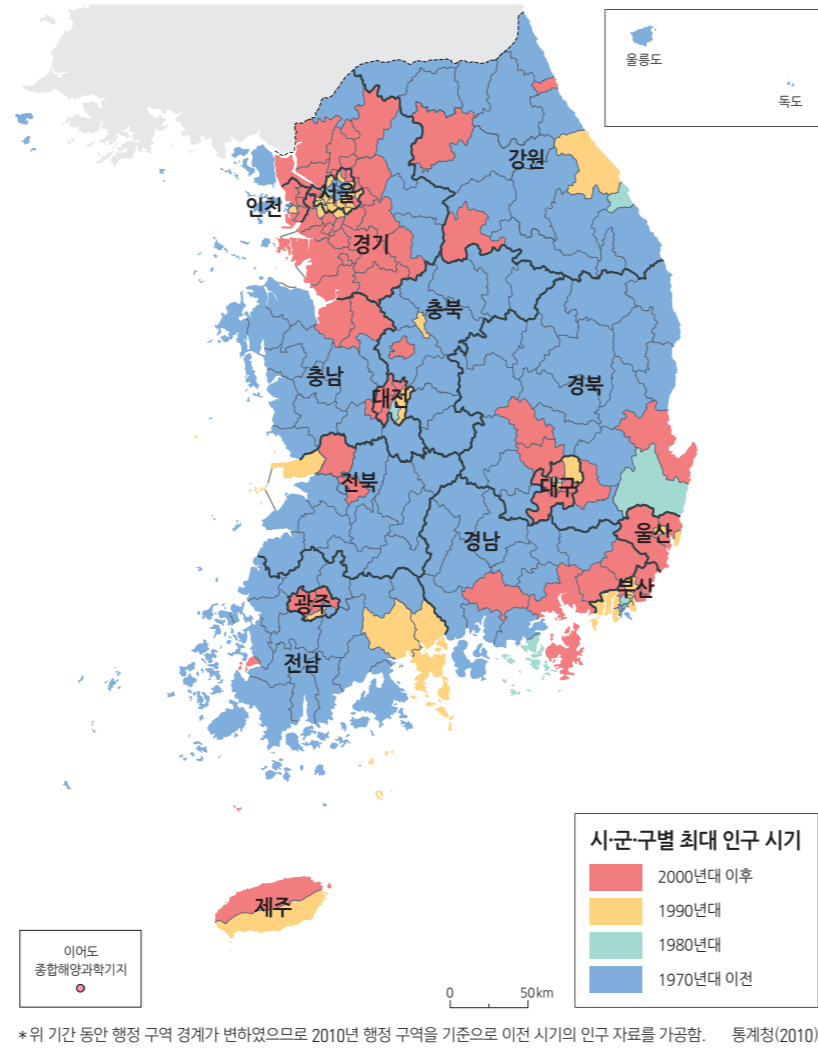


*우리나라 인구를 100명으로 가정 통계청(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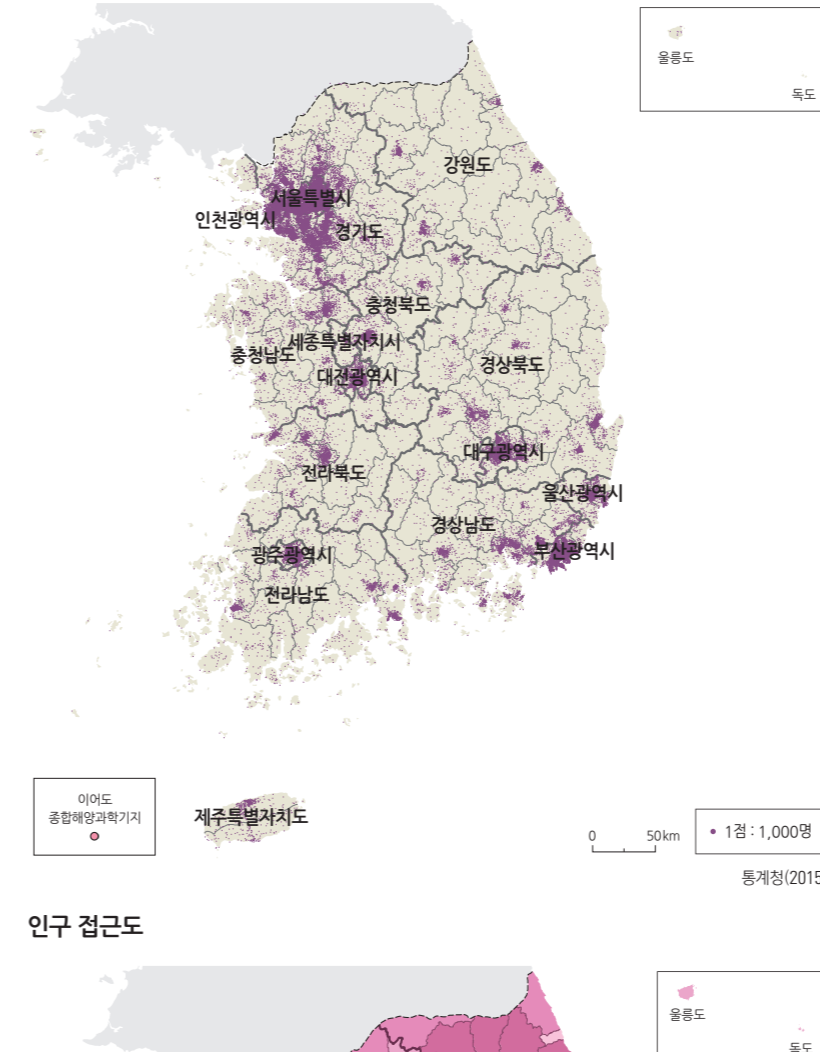
시기별 인구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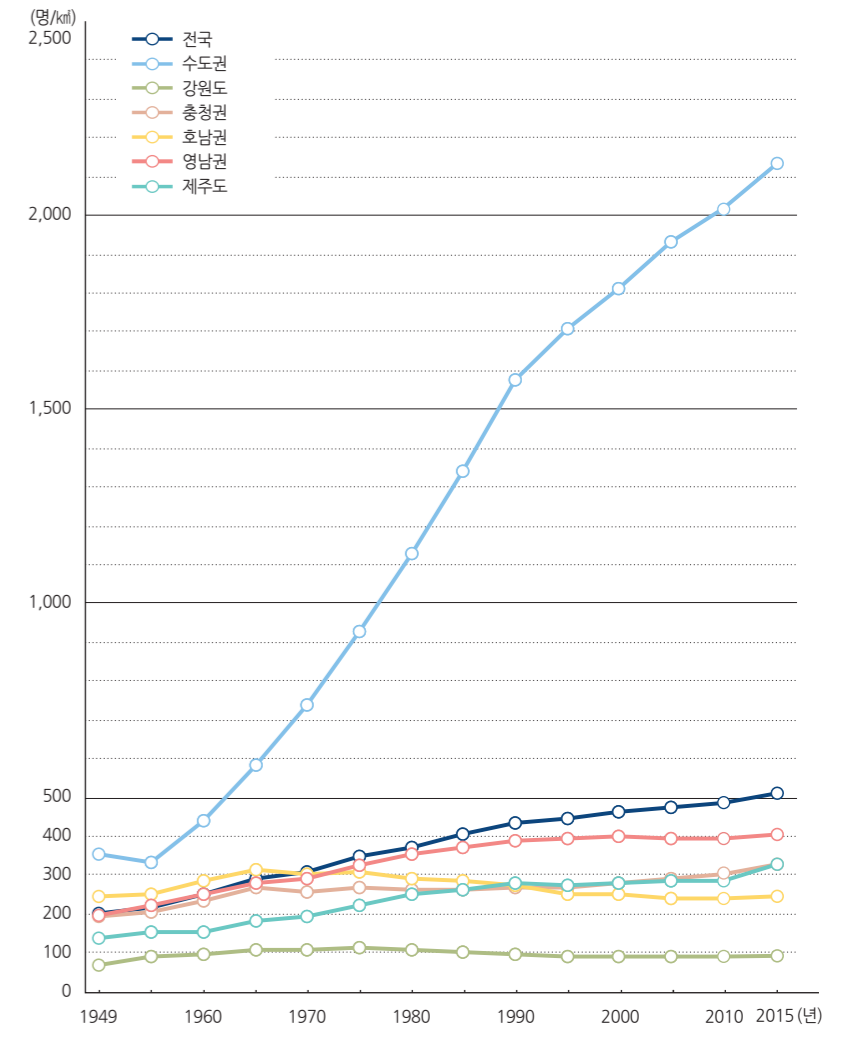
최대 인구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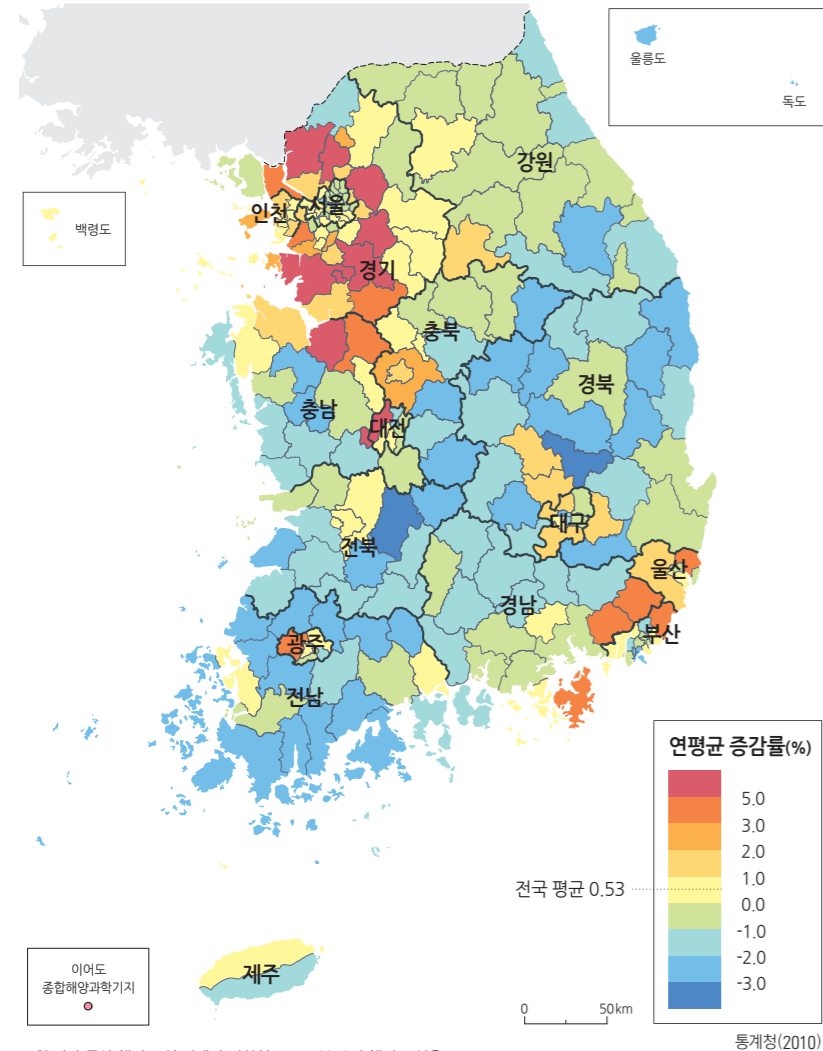
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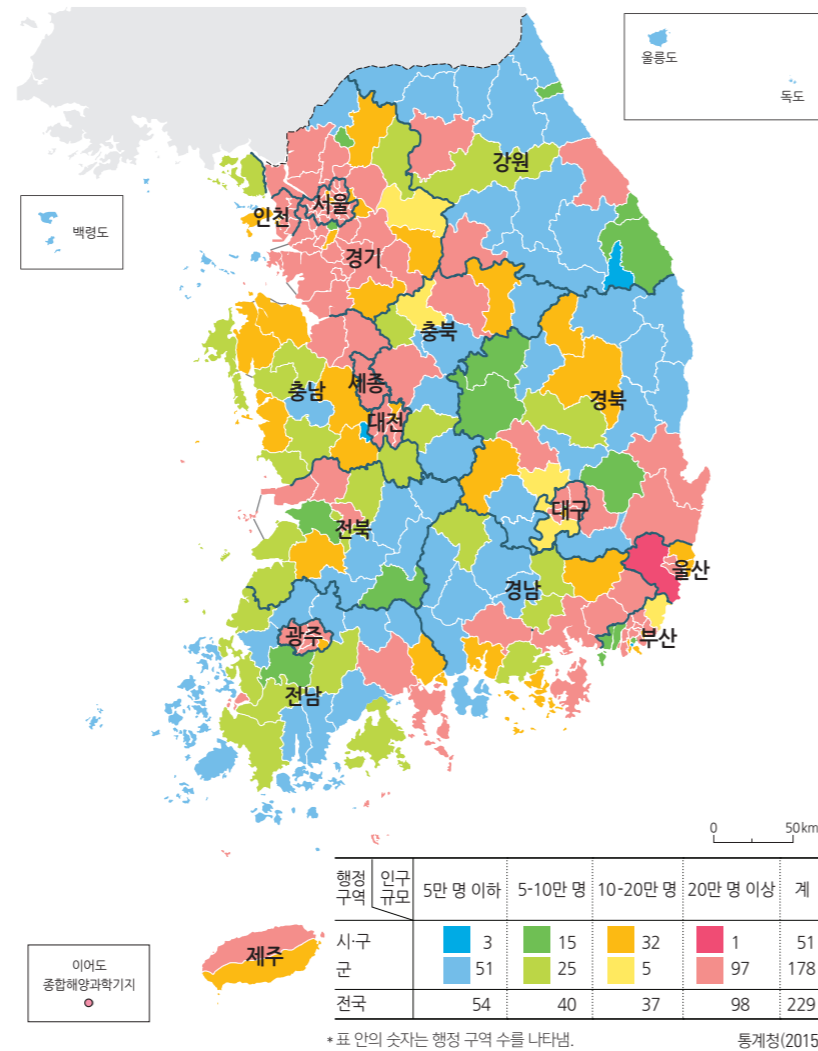
권역별 인구 밀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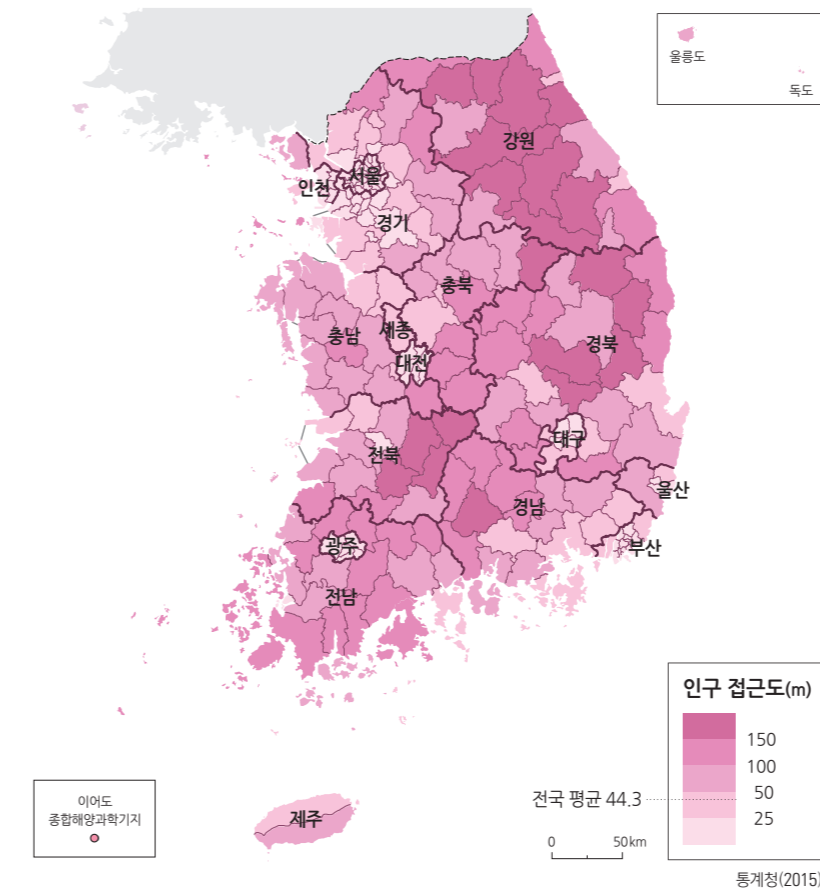
인구 증가율(2000 -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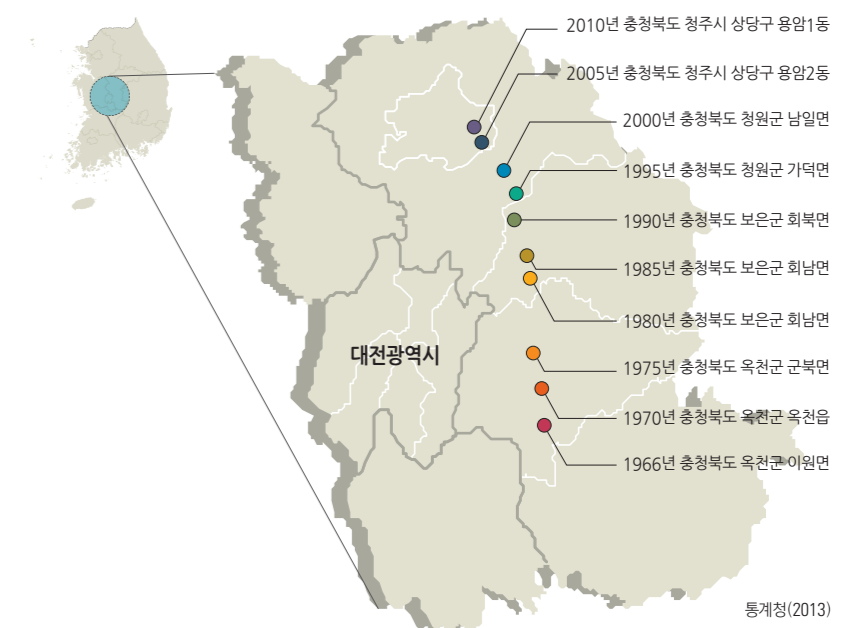
인구 규모



인구 접근도



인구 중심점의 변화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는 1949년 약 210명/㎢에서 2015년 약 509명/㎢로 급증하였다. 우리나라는 방글라데시와 몇몇 도시 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 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1966년까지 전국 평균 인구 밀도를 넘는 지역은 수도권과 호남권이었으나 현재는 수도권만이 전국 평균 인구 밀도를 상회한다. 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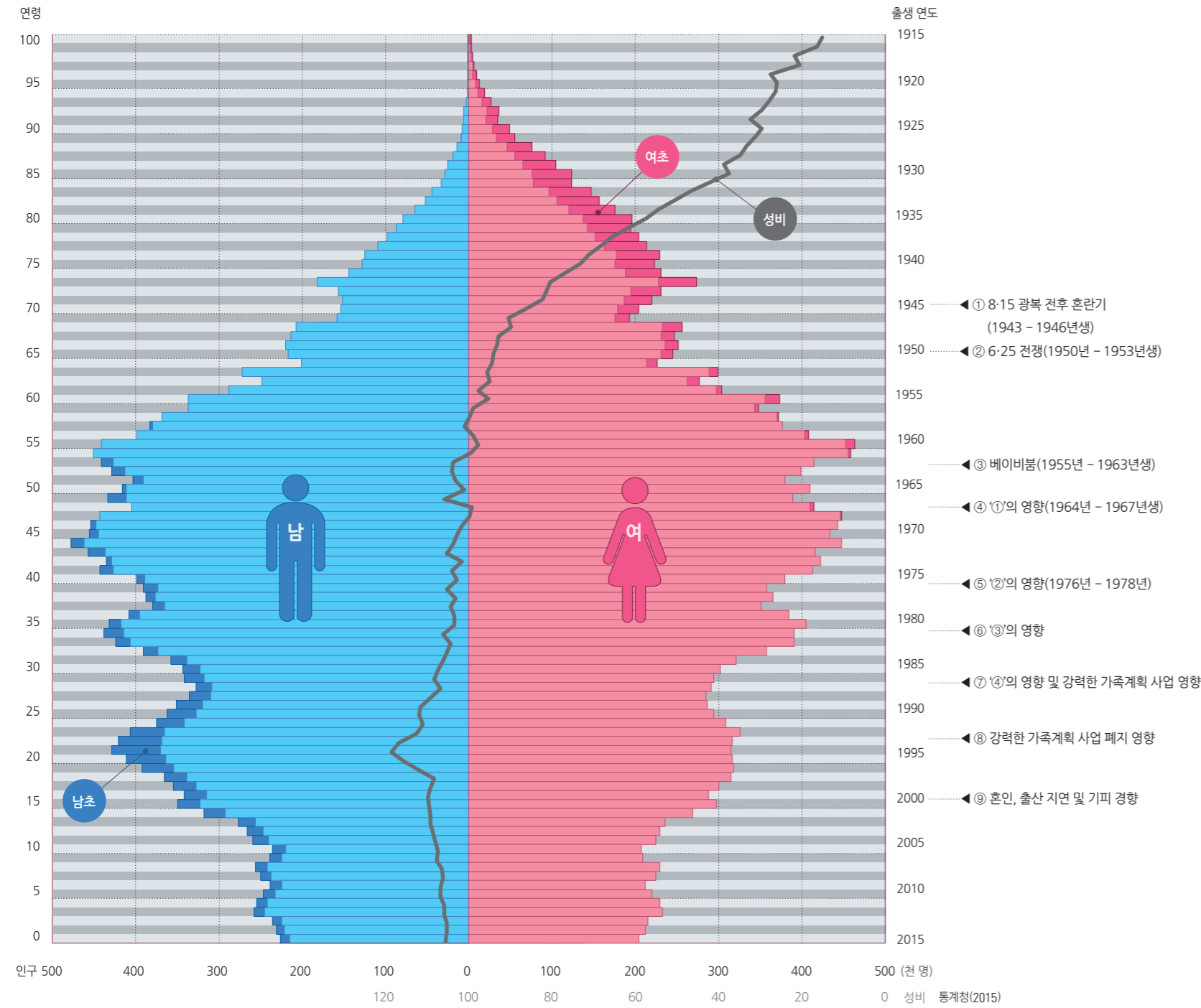
의 인구 밀도는 1949년 약 350명/㎢에서 2015년에는 약 2,134명/㎢로 증가하였다. 인구 접근도는 단위 지역에 인구가 균등하게 분포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인접 사람과의 평균 거리로 계산한다.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 접근도는 45.4m이고 시·군·구에서 인구 접근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 인제군이며, 인구 접근

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양천구이다. 인구 중심점은 인구의 크기를 무게로 여겼을 때 무게 중심이 되는 지점을 말한다. 1966년 이후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인구 중심점은 대체로 수도권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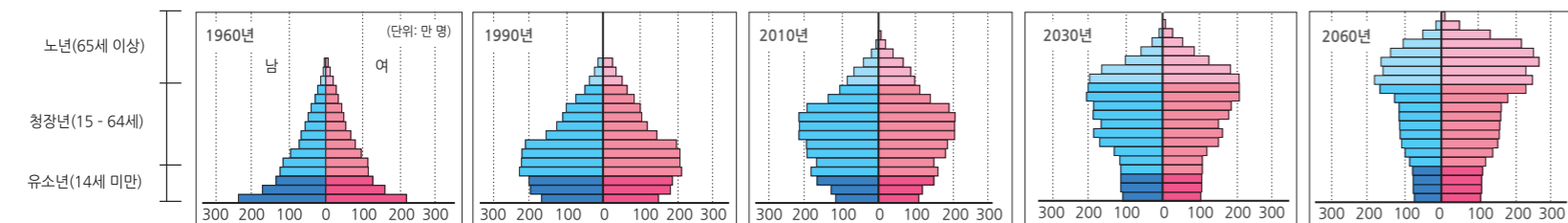


인구 구조와 미래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



100년간 인구 피라미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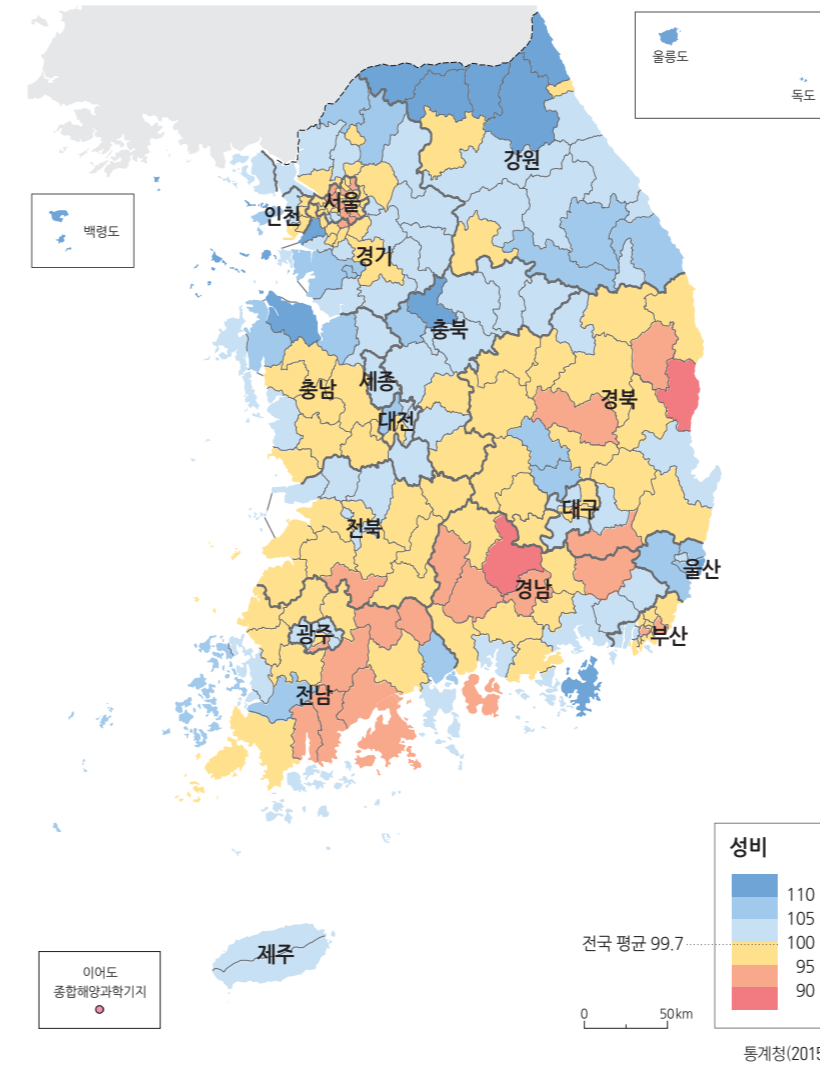


인구 구조는 연령, 성, 가구 구성 등 특성별 인구 구성을 지역별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피라미드를 통해 연령별, 성별 인구 구조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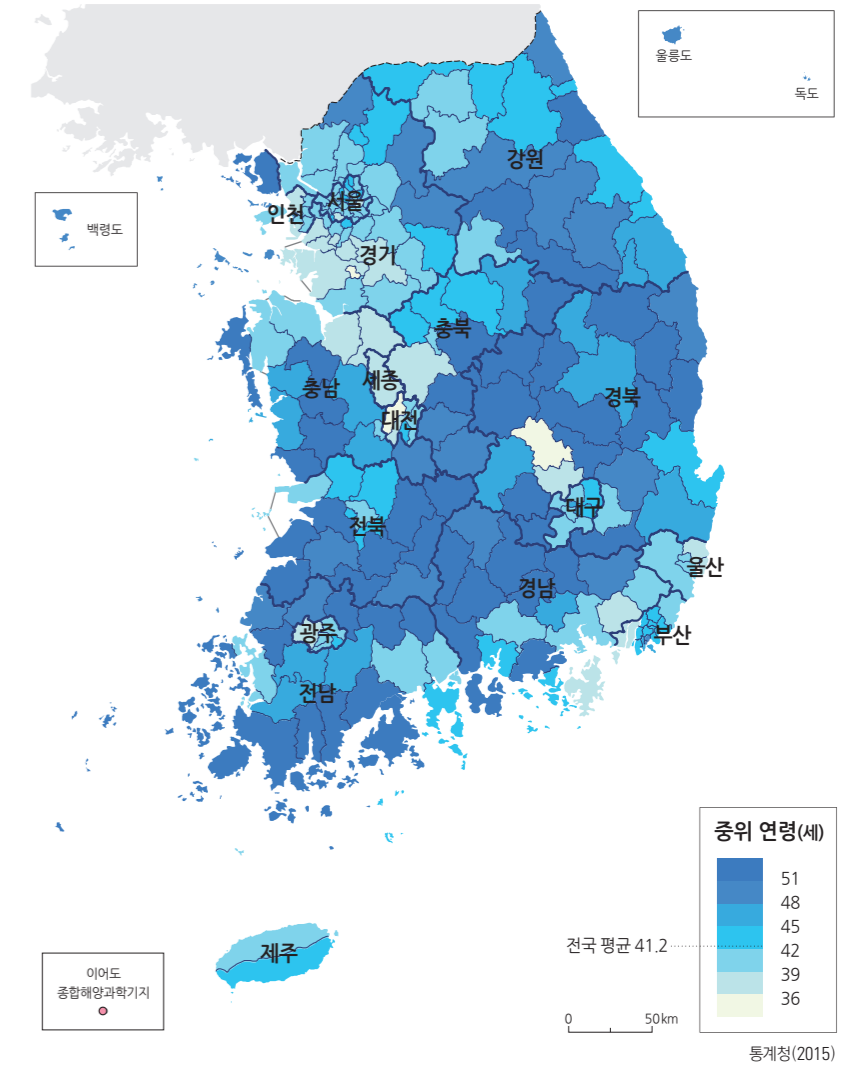
습은 1960년에는 다산다사의 전형적인 확대형이었으나 1960년 이후 출산율과 사망률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인구 수축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성비는 2015년에는 99.7로 여성

이 남성보다 많다. 연령 계층별로는 50세 미만은 남초 현상, 50대 이상은 여초 현상을 보이며, 60세 이후 성비는 급격히 낮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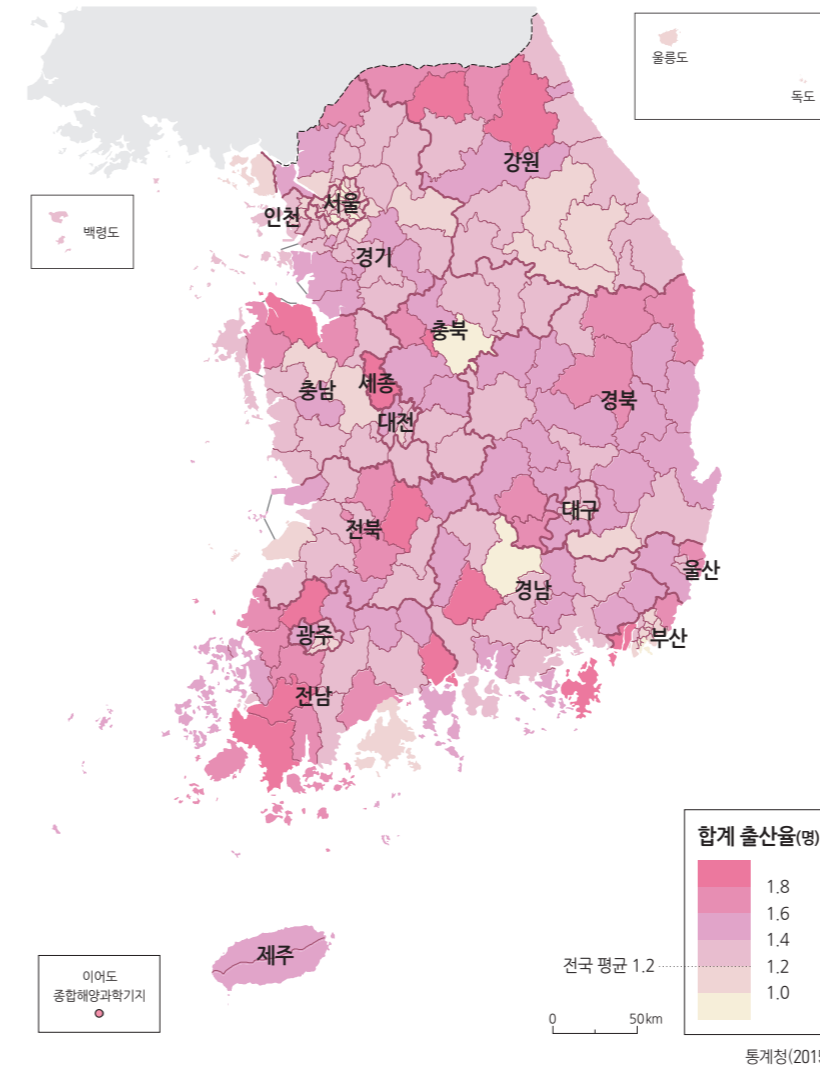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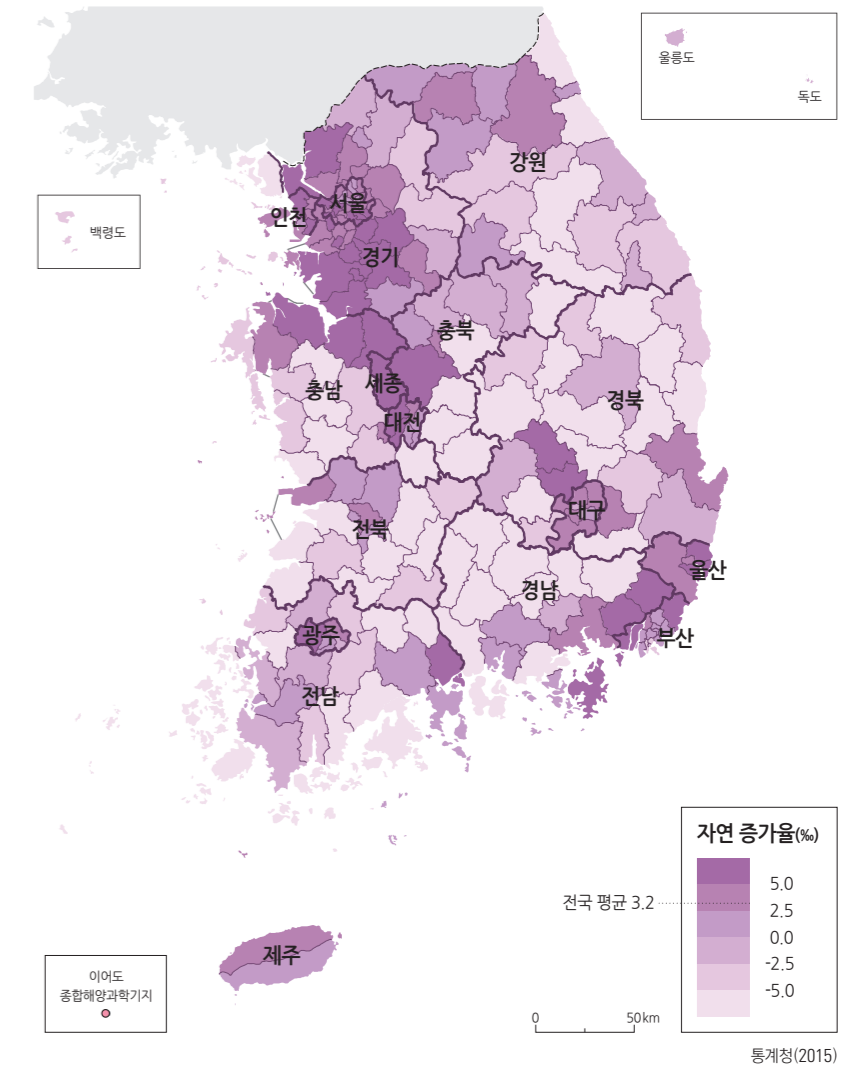
중위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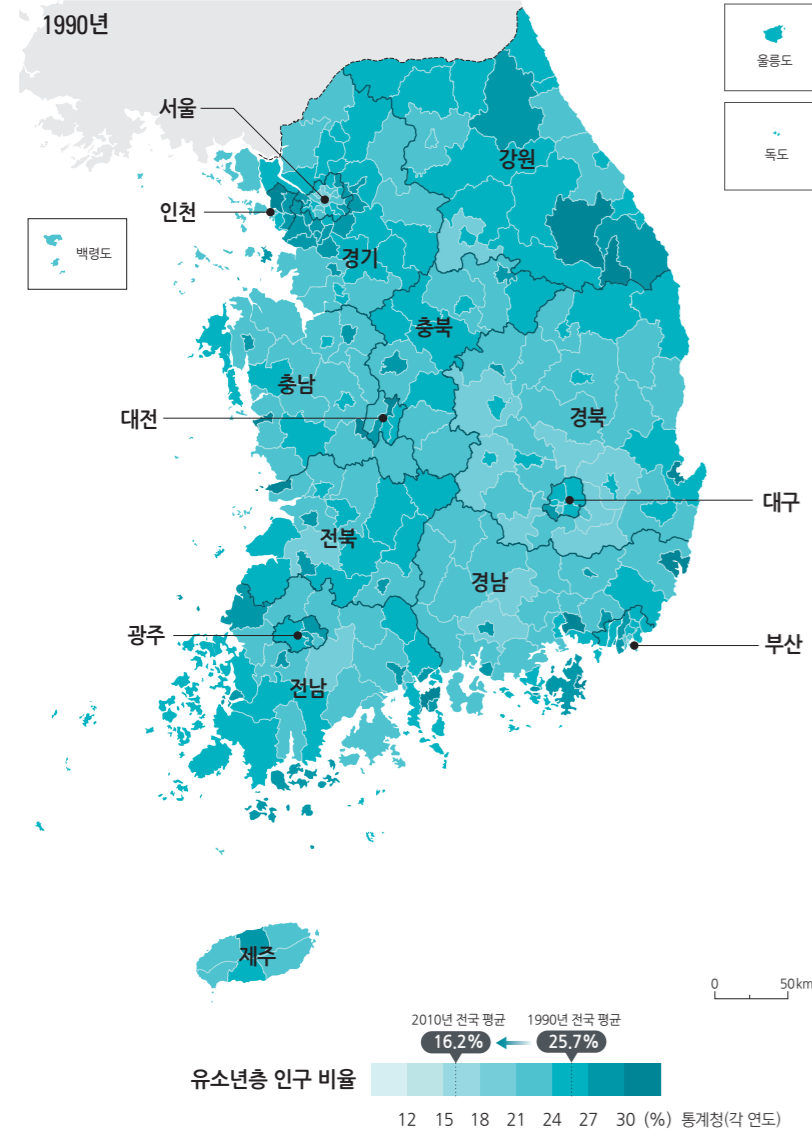
합계 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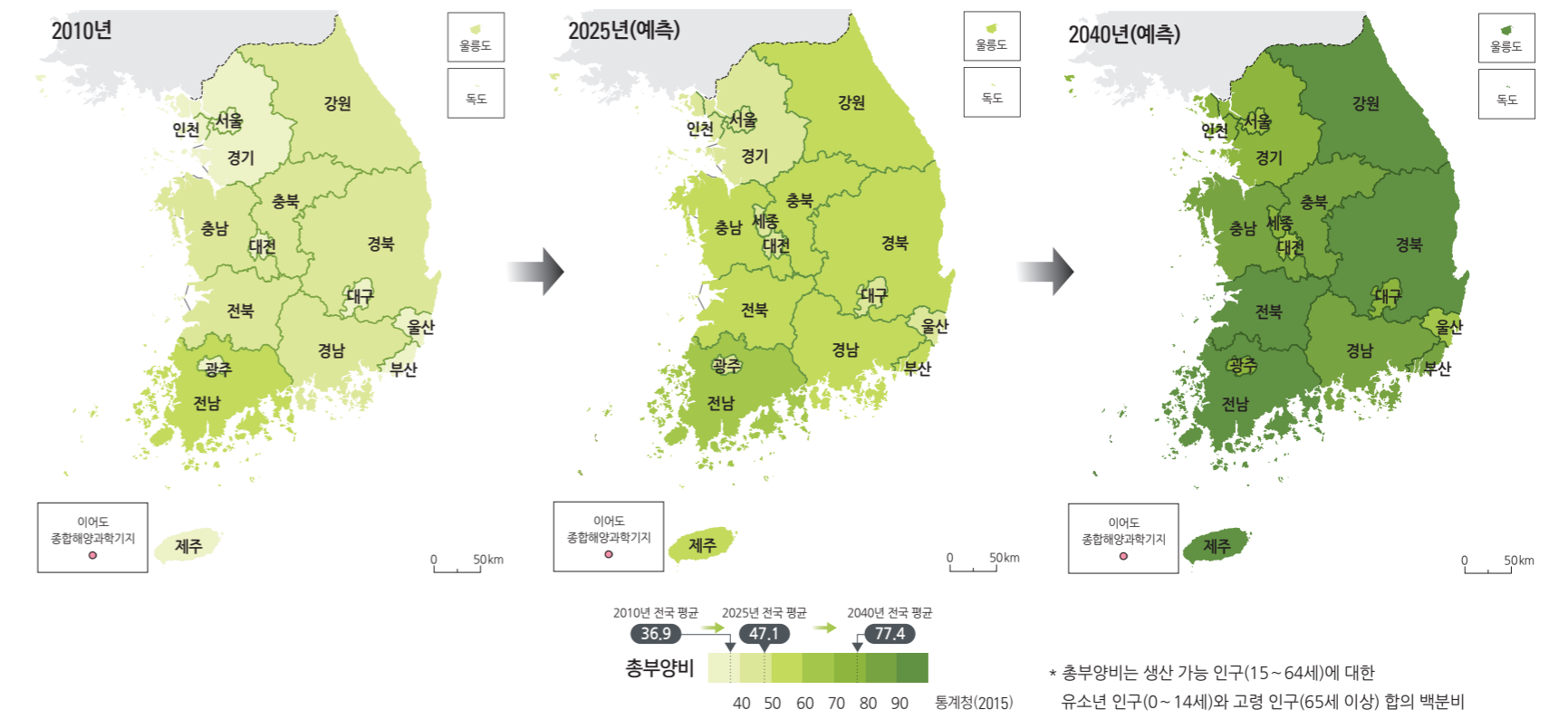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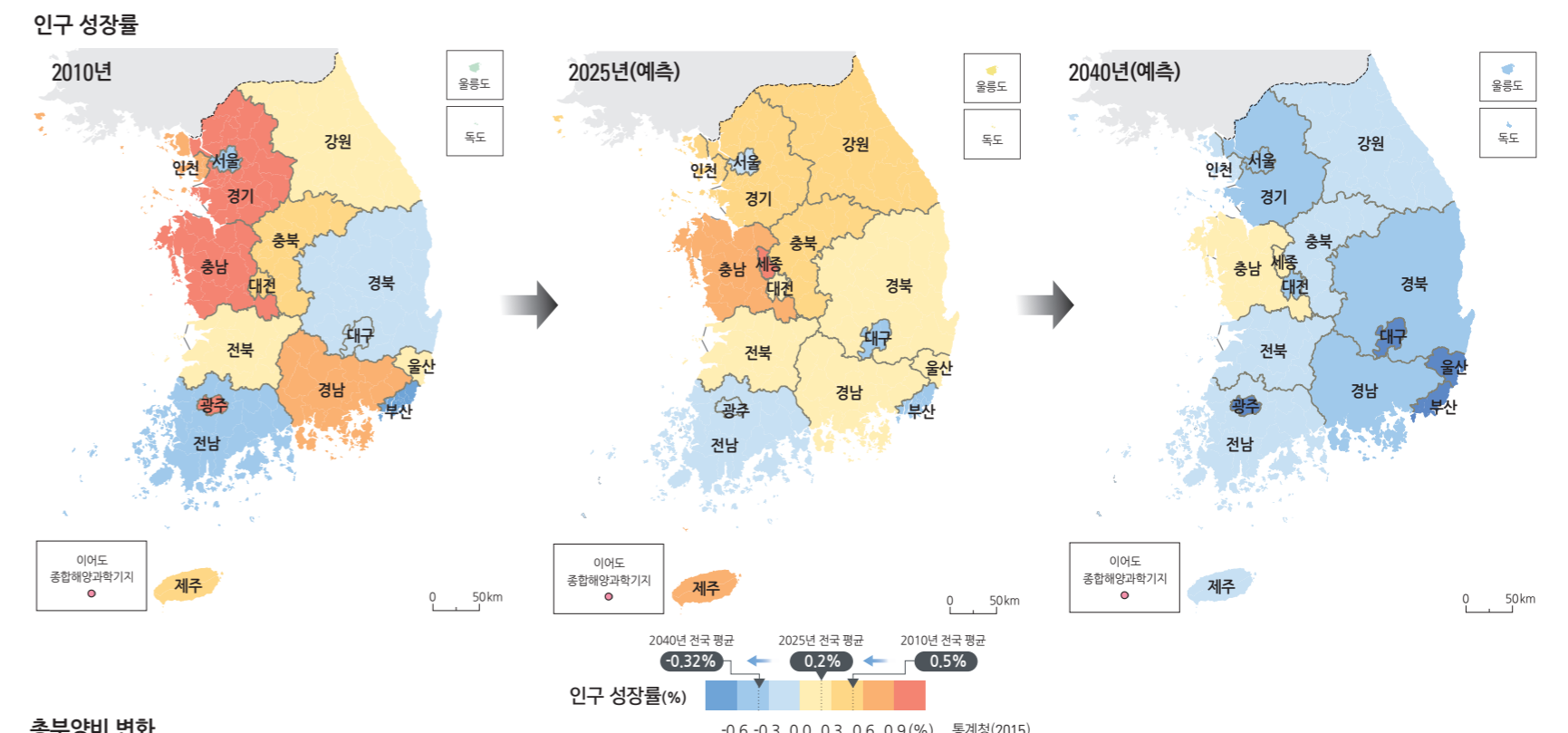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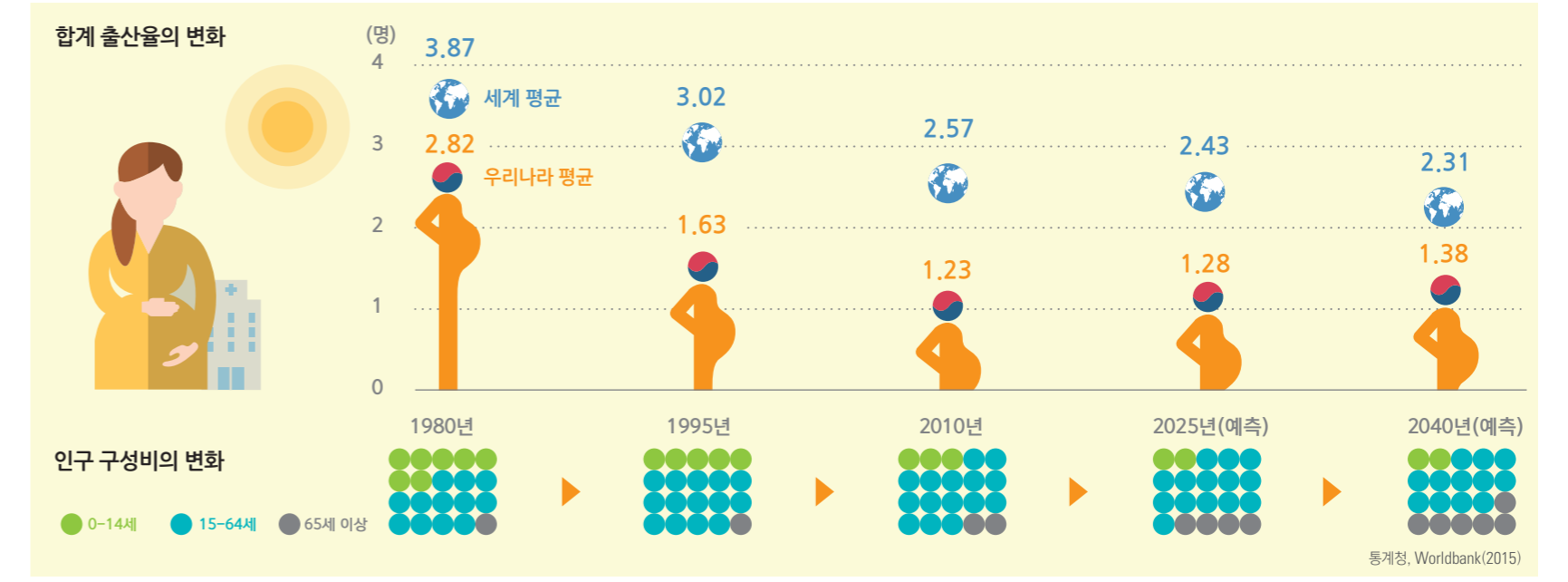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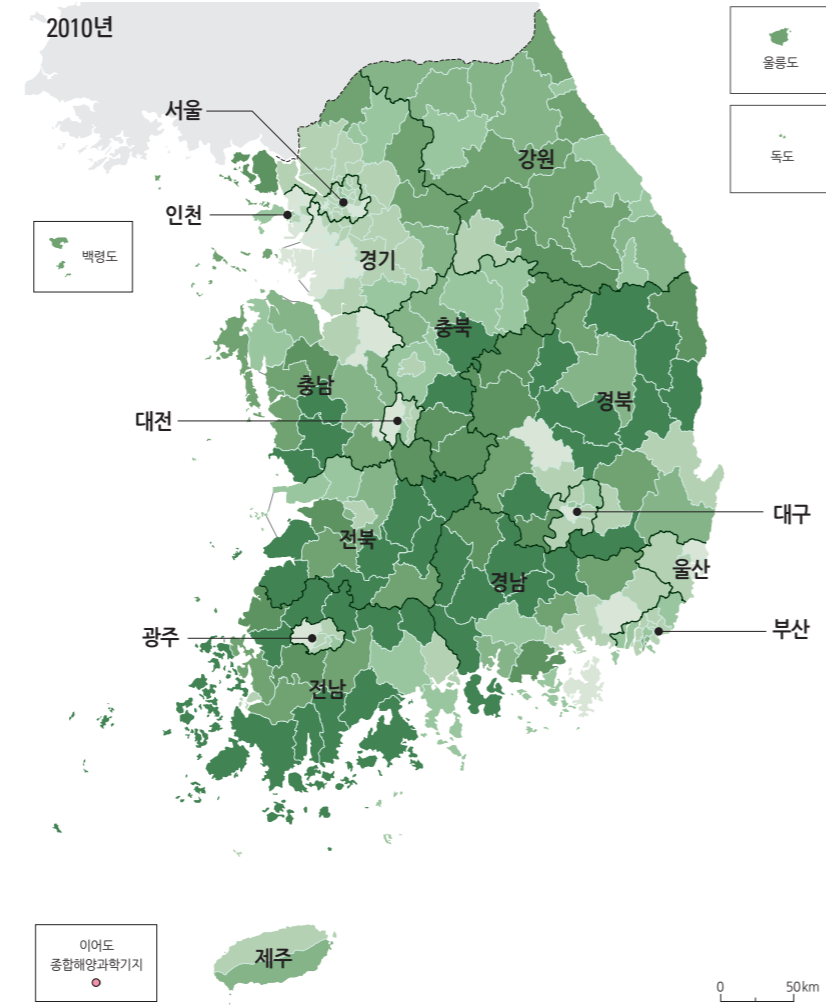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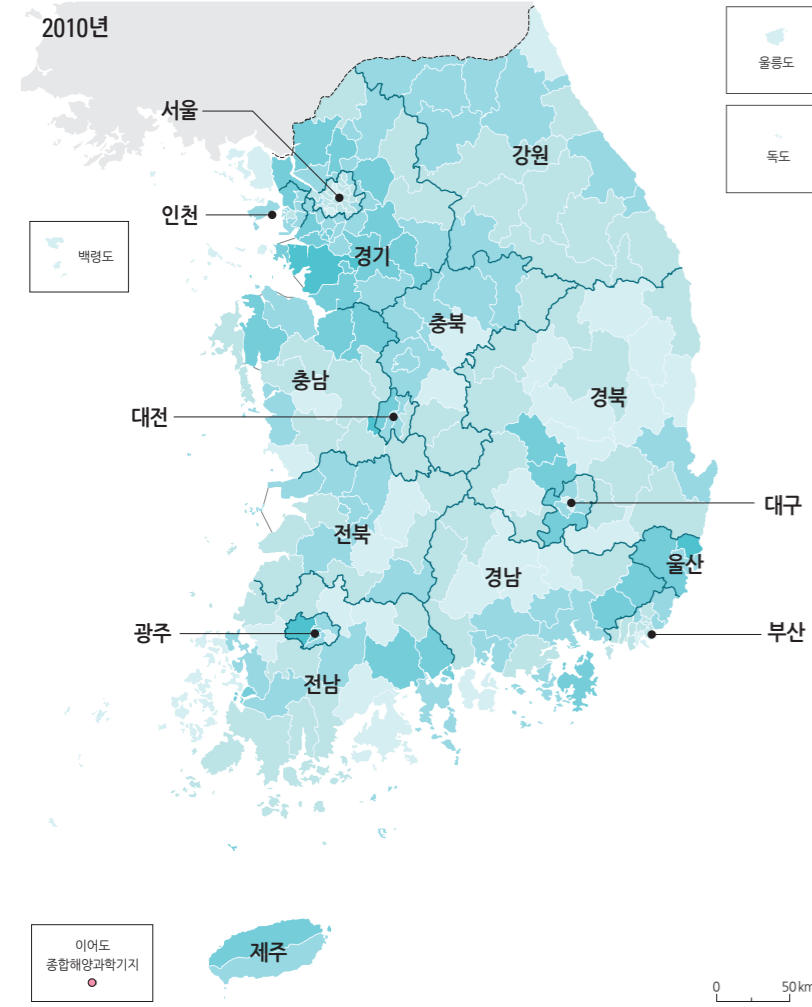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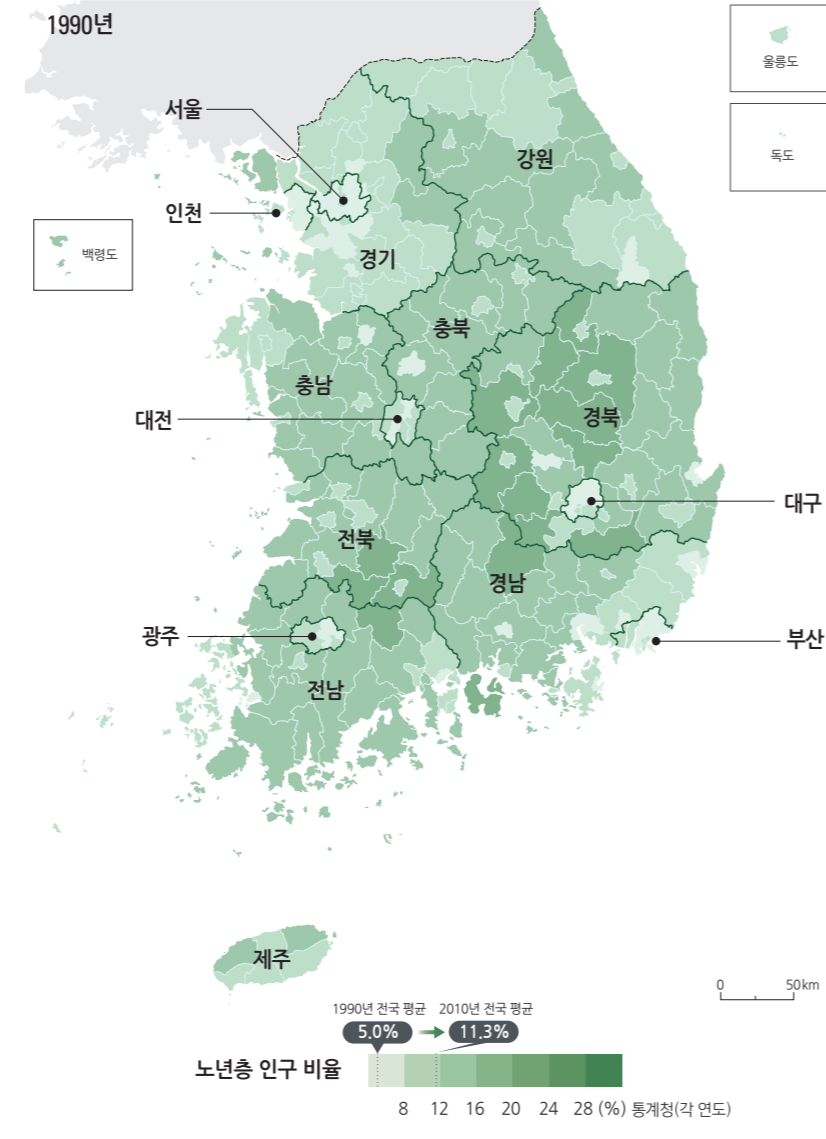
자연 증가율



유소년층 인구 비율



노년층 인구 비율



인구 이동

국내 이동은 전입과 전출로 구분된다. 전입은 행정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 특정 지역으로 이동해 온 경우이며, 전출은 행정 경계를 넘어 특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간 경우이다. 인구 순이동은 전입 통계에서 전출 통계를 뺀 값이며, 이동자 수는 전입자와 전출자를 합친 값, 이동률은 이동자 수의 비율이다. 전체적으로 국내 이동을 살펴보면 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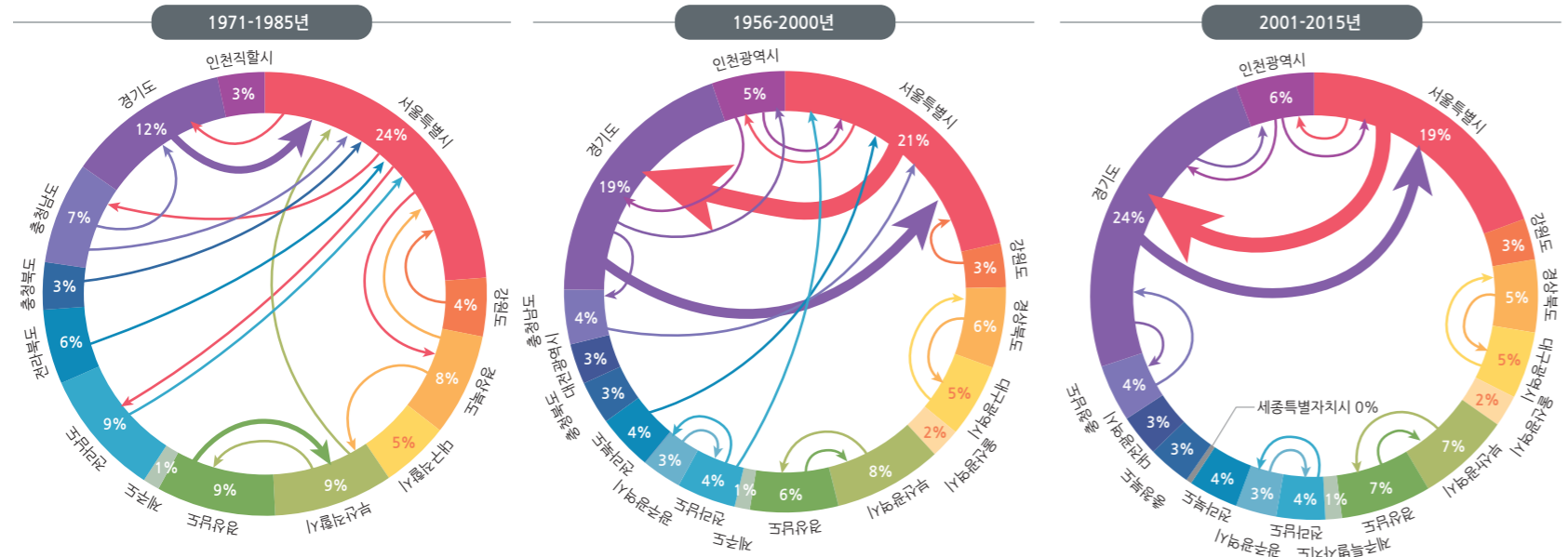
와 1980년대에는 수도권으로 집중되다 1990년 이후에는 균형 개발 정책, 공공 기관과 기업체의 이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서울에서 인천, 경기권으로의 순이동이 늘어나고 있다.

인구 이동의 방향, 즉 지역 간 유출과 유입의 분포는 거리 조락*, 도시화, 교외화·역도시화 등의 특징을 시기별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

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거리 조락 측면보다는 도시화의 특징이 두드러졌으나, 이후 1990년대부터는 거리 조락의 특징이 크게 나타나고, 2000년에는 교외화와 역도시화 현상이 국지적으로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구 이동의 특징들은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화, 수도권 집중 그리고 인구 정주 안정화 등 사회적 변화 추이를 시기별로 잘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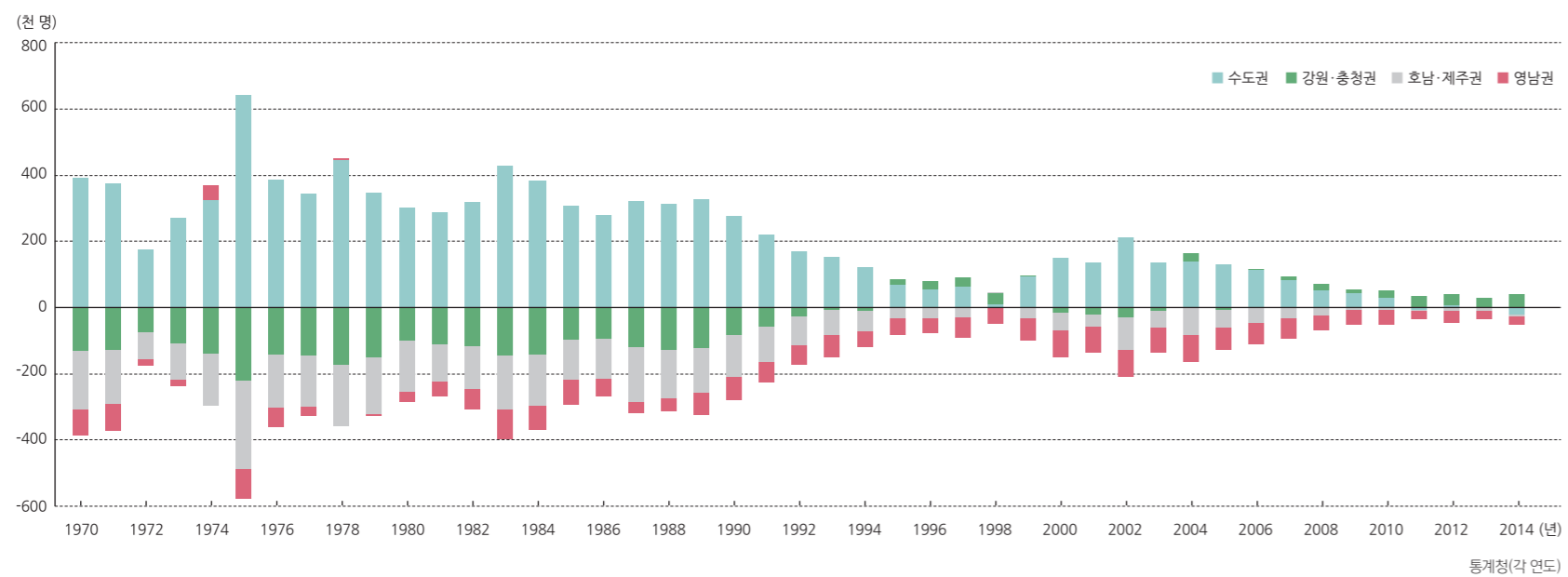
* 거리 조락: 거리가 가까울수록 미치는 영향이 크고, 거리가 멀수록 미치는 영향이 적어짐.

시기별 인구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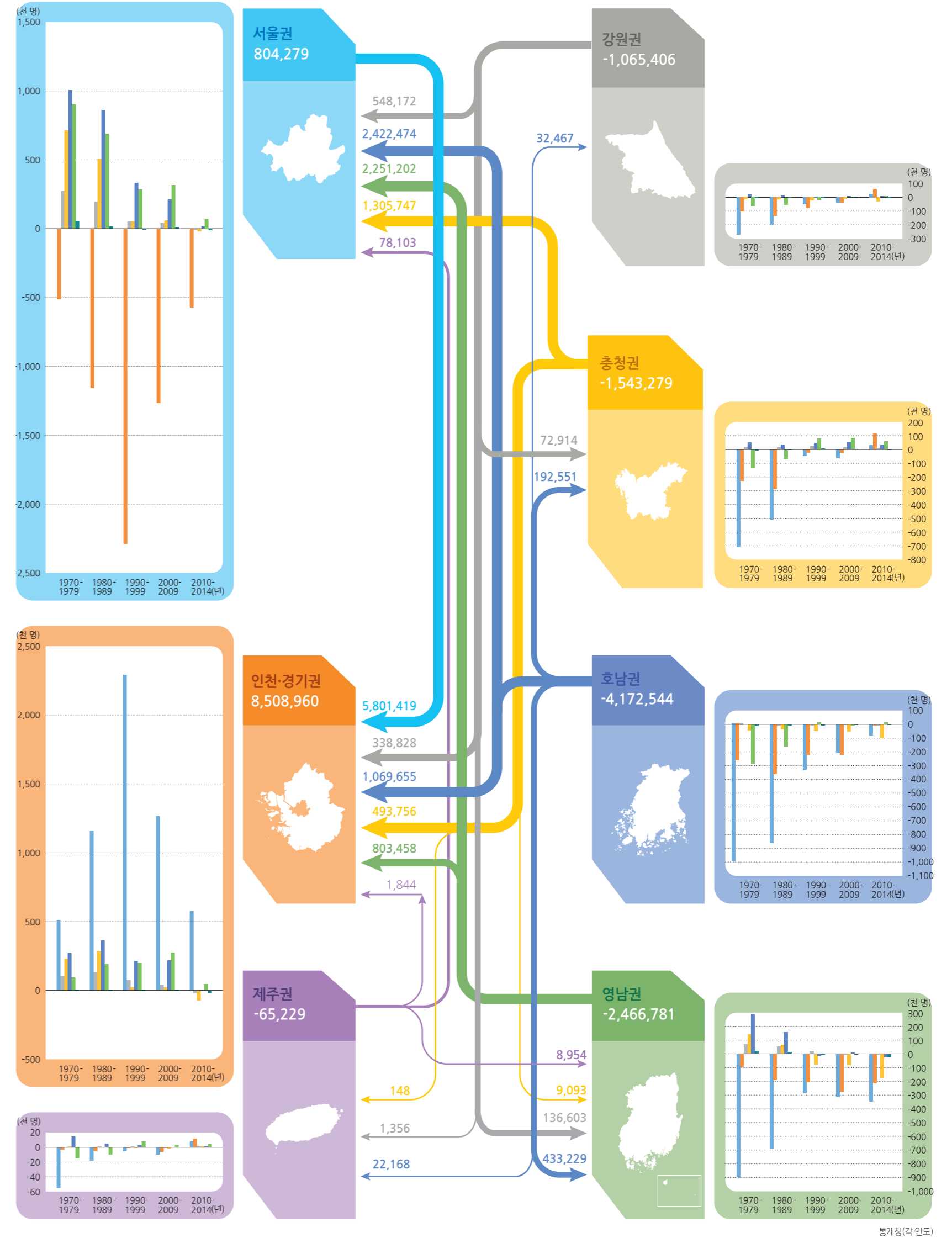


* 표시된 비율은 각각 1985년, 2000년, 2015년의 인구 구성비임. 통계청(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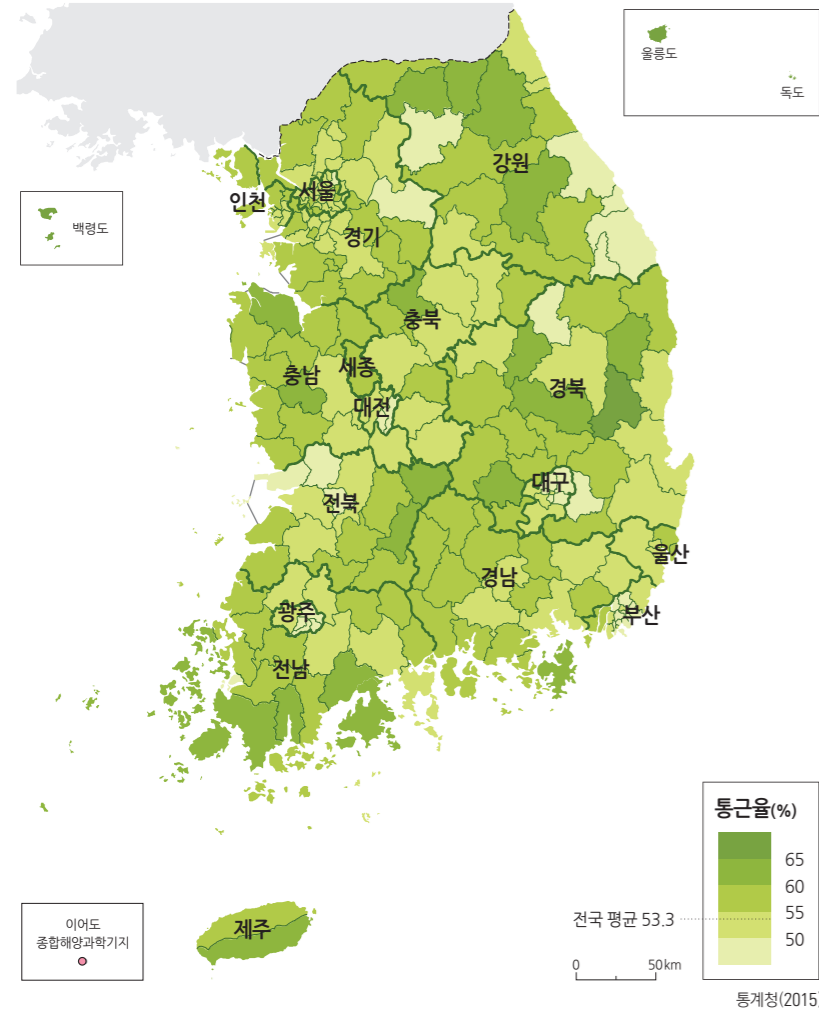
순이동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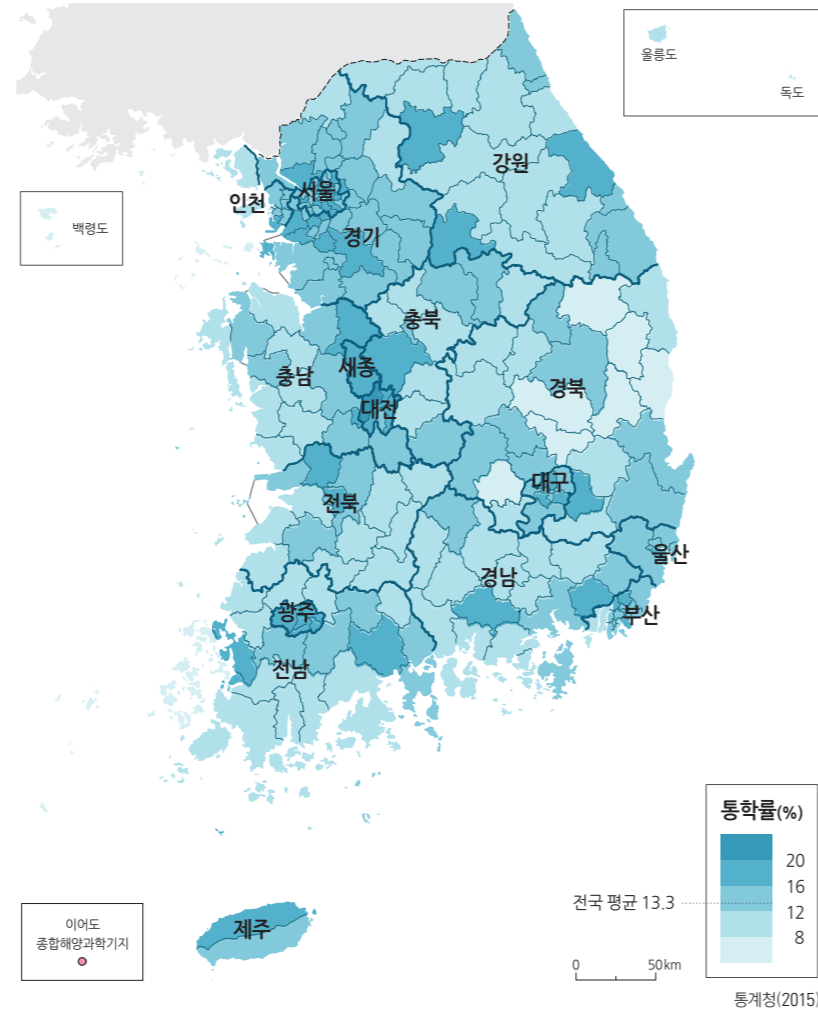
인구 순이동(1970 -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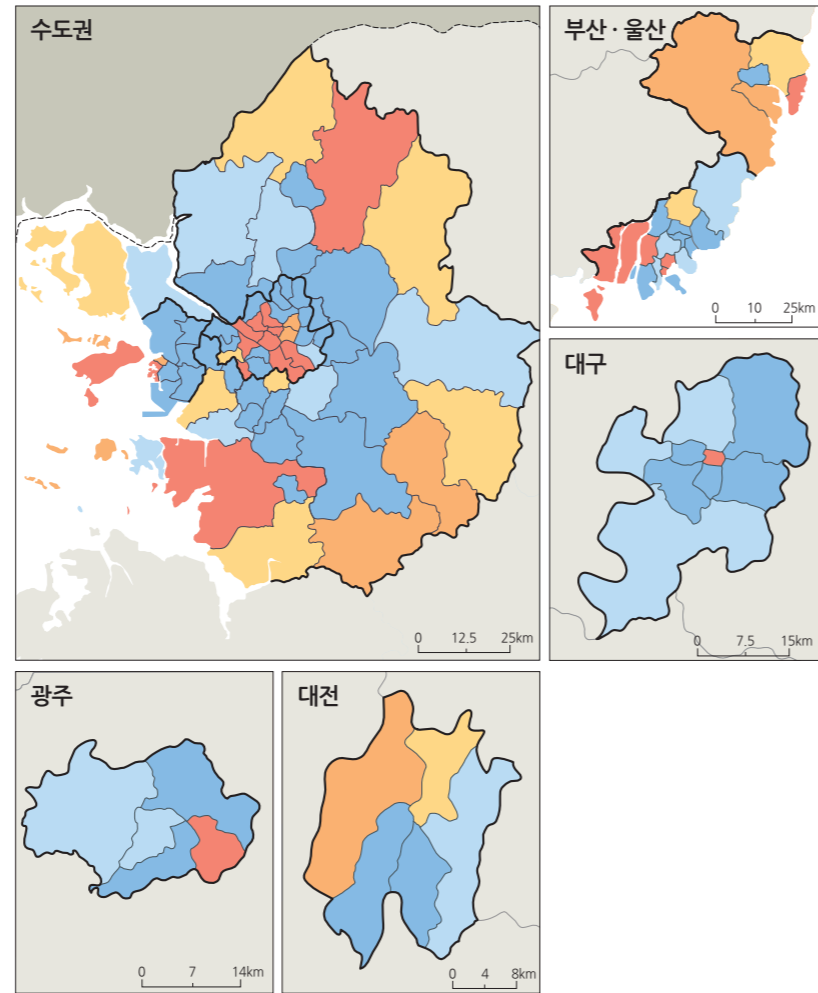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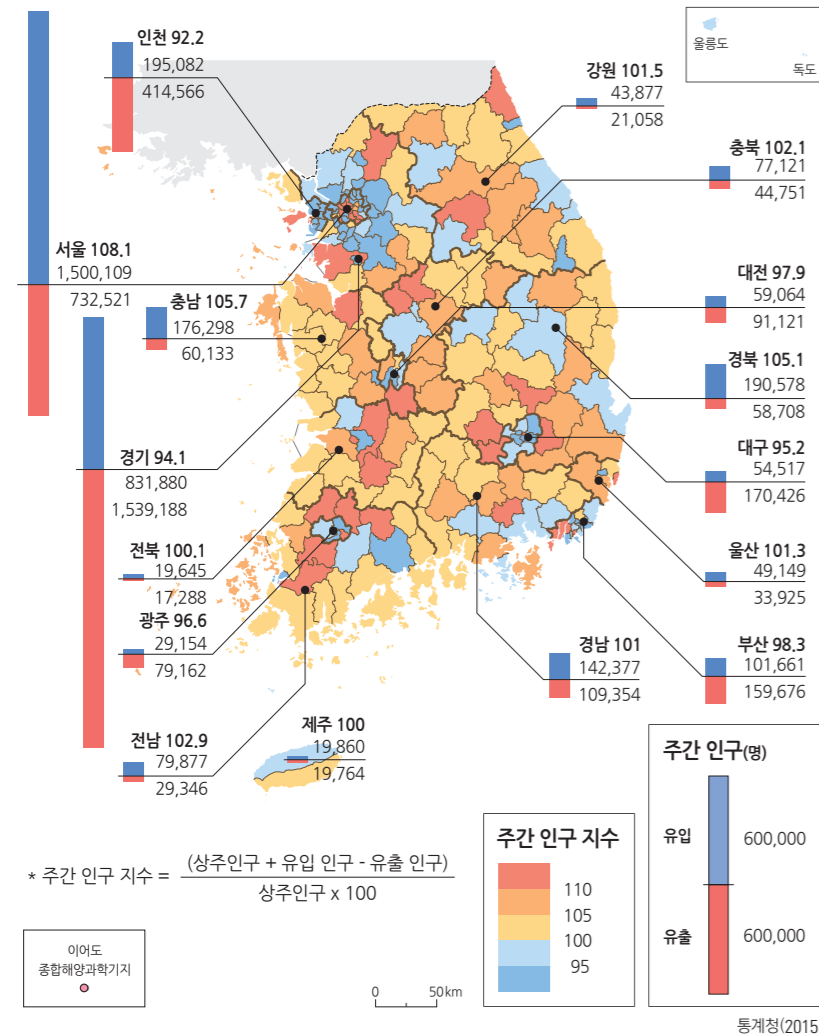
통근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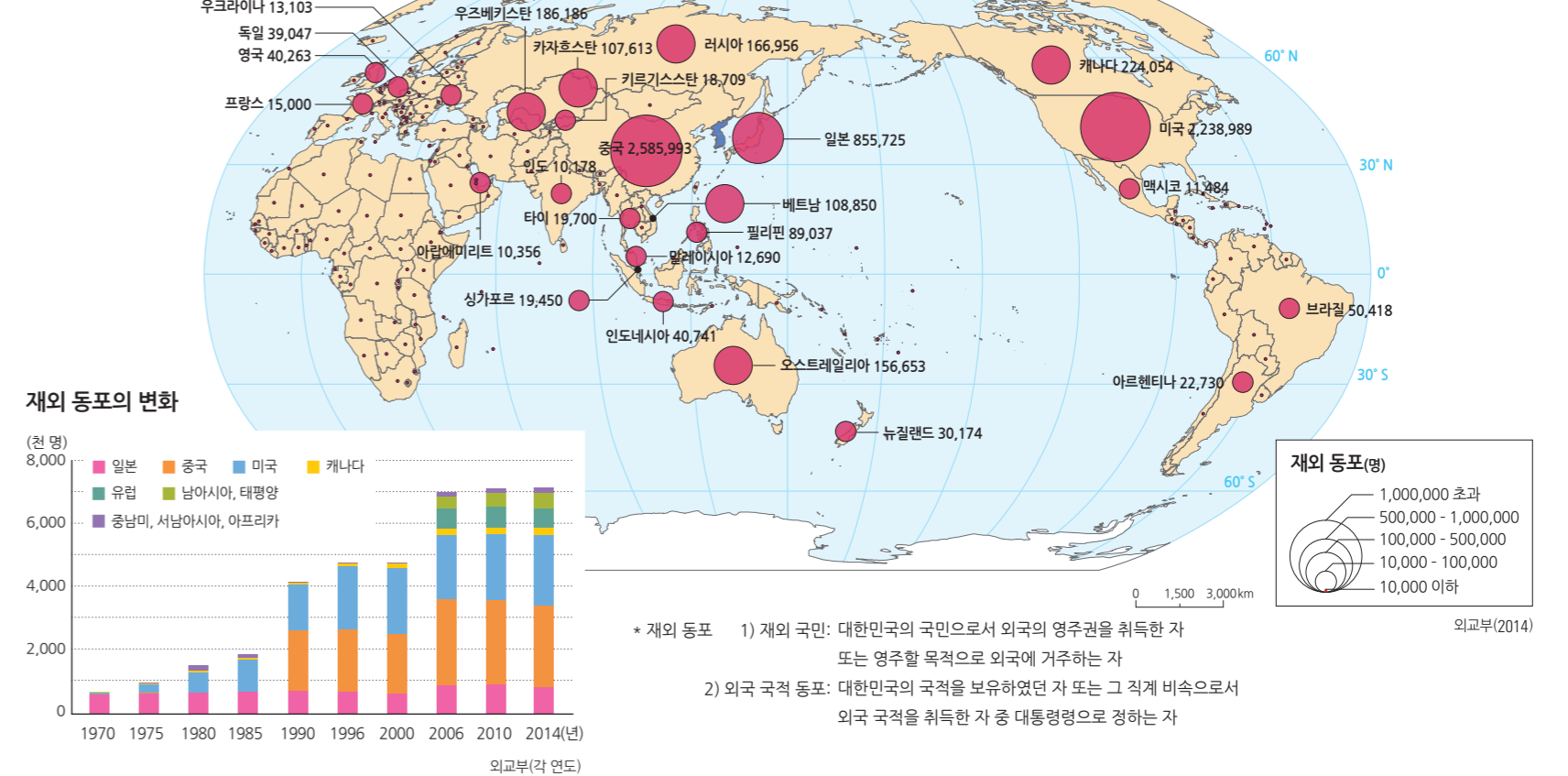
통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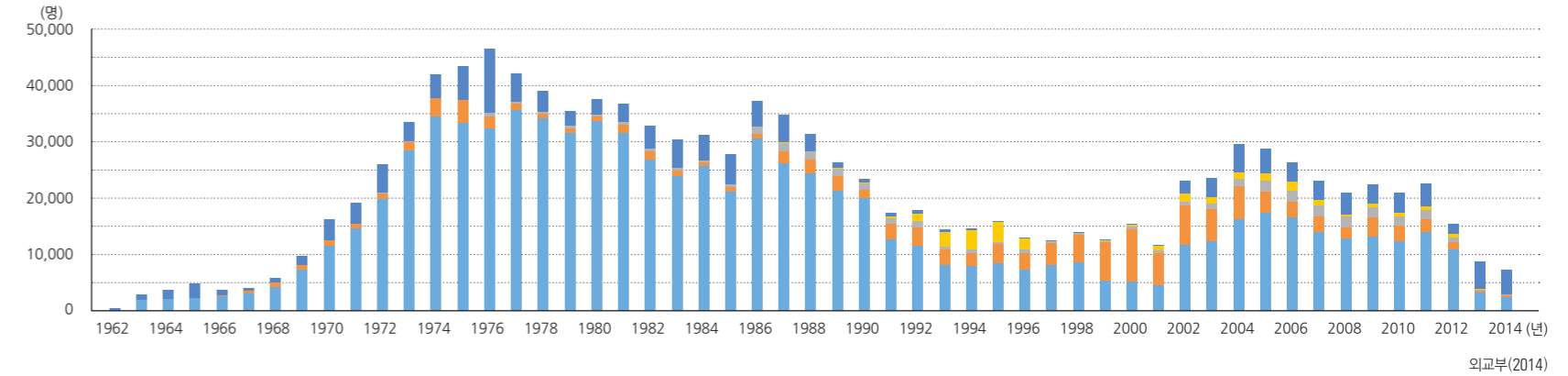
주간 인구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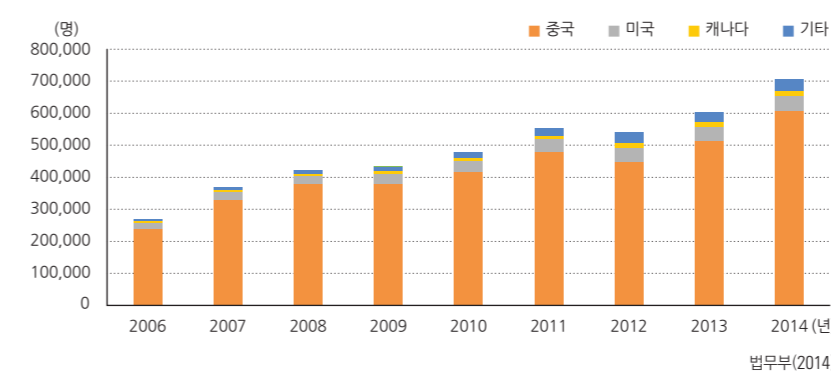
재외 동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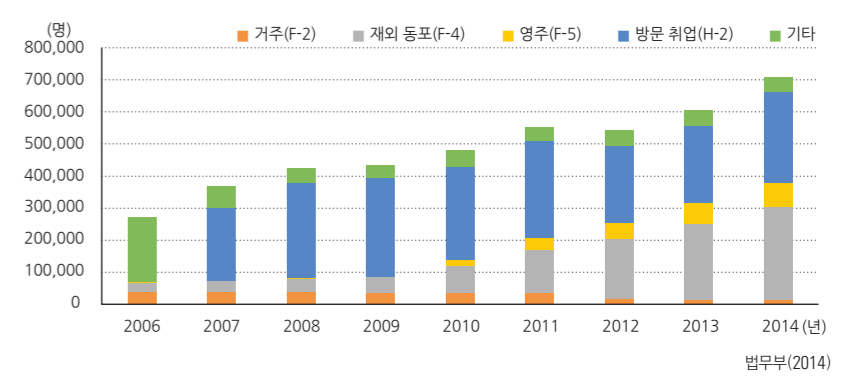
우리 국민의 국외 이주



국적별 국내 체류 외국 국적 동포



체류 자격별 국내 체류 외국 국적 동포



재외 동포는 법률상으로는 재외 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로 구분된다. 재외 동포는 2014년 718만 명으로 중국, 미국, 일본, 구 소련 지역 등에 많이 분포한다. 1992년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교 이후 조선족이 중국 동포로 통계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구 소련 지역에는 약 50만 명의 고려인이 있다. 내국인의 국외 이주는 초기 미국 중심에서

점차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다양한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 국적 동포는 2006년 약 27만 명에서 2014년 약 7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재외 동포에 대한 포용 정책에 따라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취업이 허용되면서 중국 및 구 소련 지역(독립 국가 연합) 국적 동포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외국 국적 동포는 서울,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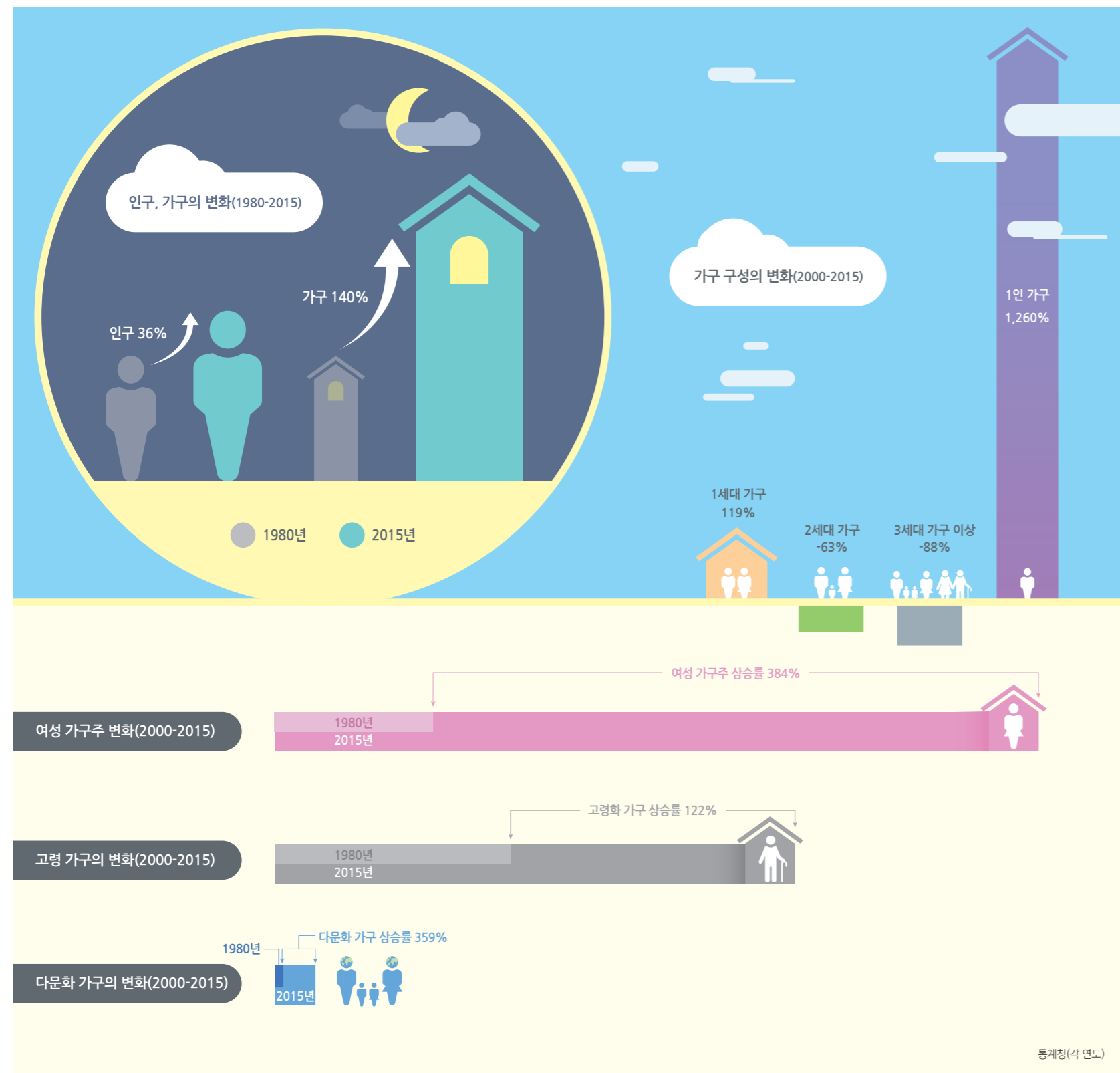
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72%)이 대부분이고, 미국 국적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외국에 영주하는 재외 국민의 거소 신고는 2005년 약 4만 명에서 2014년 8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의 외국 영주지는 미국이 약 절반 정도이며, 일본, 캐나다 등의 순이다. 한편 2000년대 이후 북한 이탈 주민이 늘어나고 있으며, 여성의 비율이 높다.

가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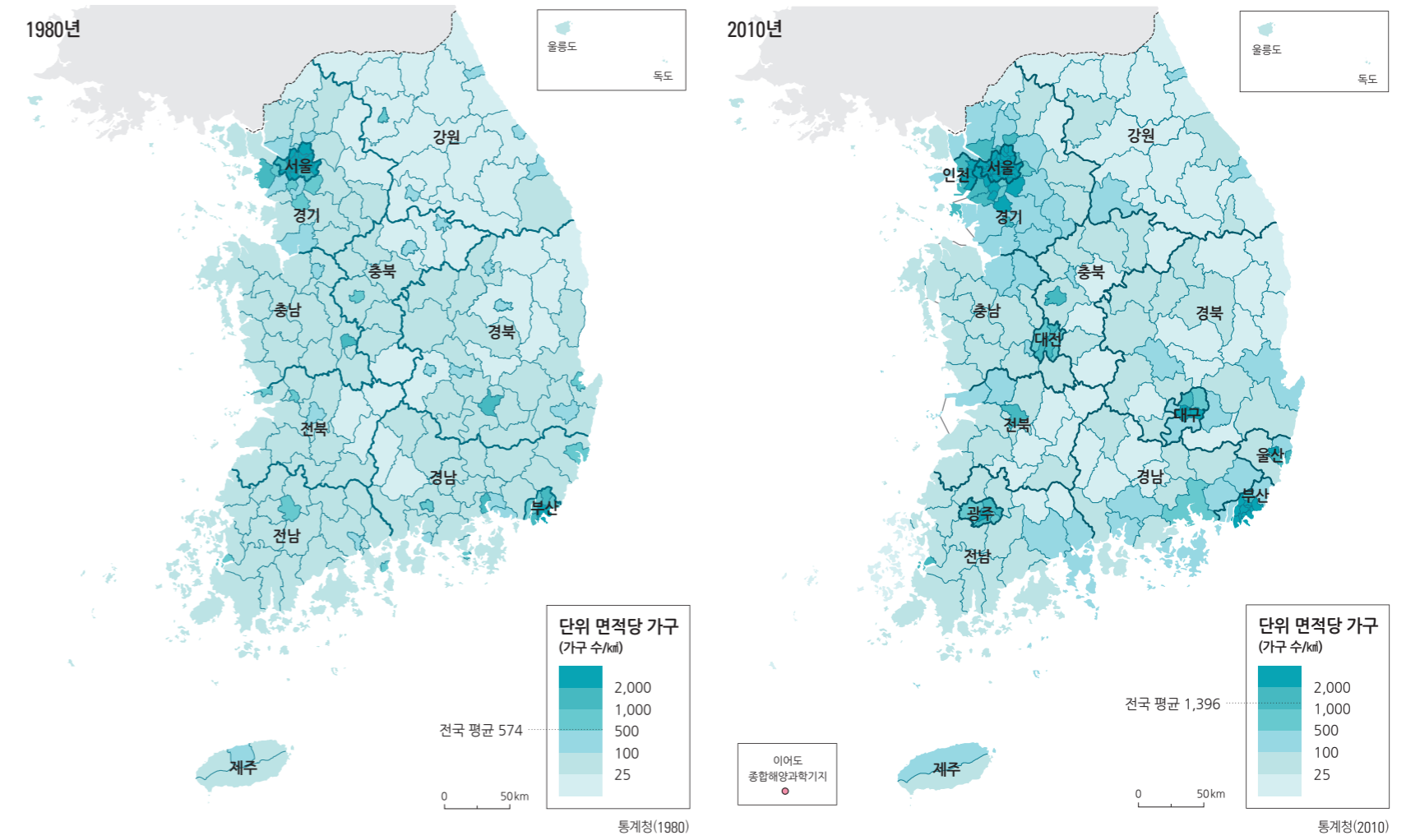
가구는 1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이다. 가구는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1980년과 2015년 사이에 인구 증가율이 36.4%인데 비해 가구

증가율이 139.8%인 것은 가족의 분화 현상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1세대 가구와 1인 가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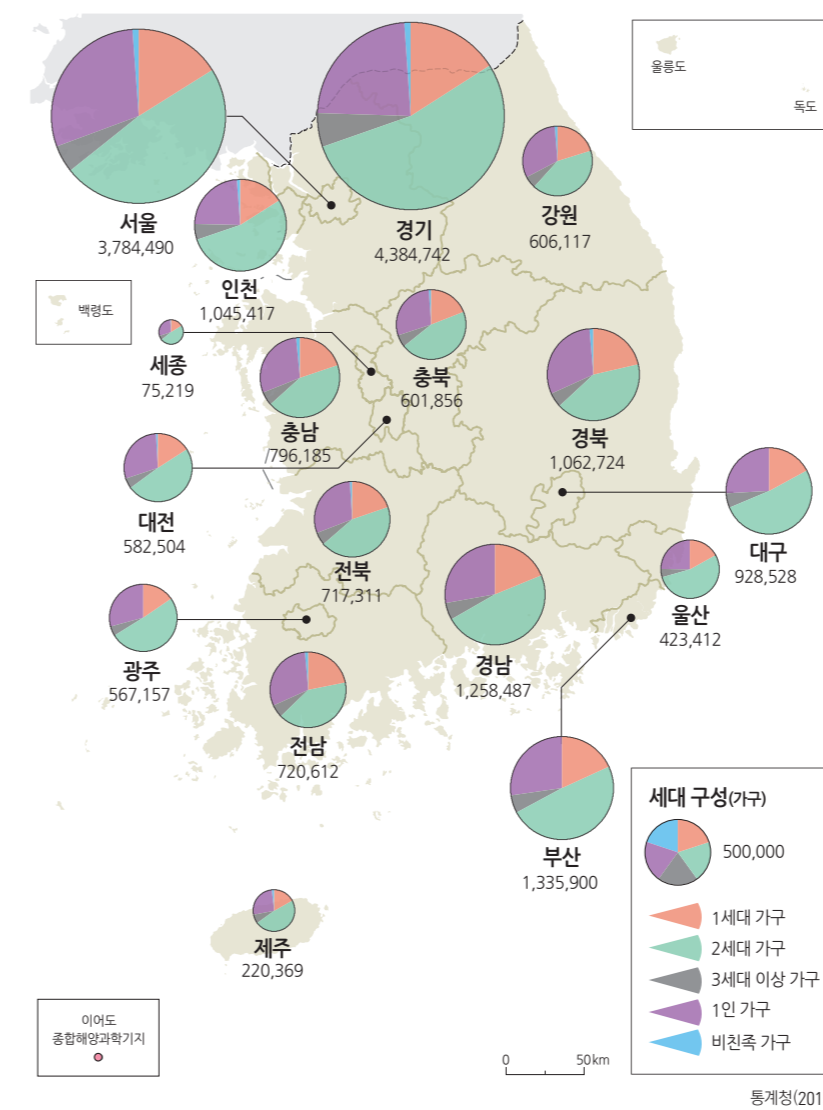
또한 국제결혼과 취업 및 인력 교류에 따른 다문화가구의 증가, 여성 노인·이혼 및 미혼 여성 증가,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등으로 인한 여성 가구주의 증가도 특징적인 변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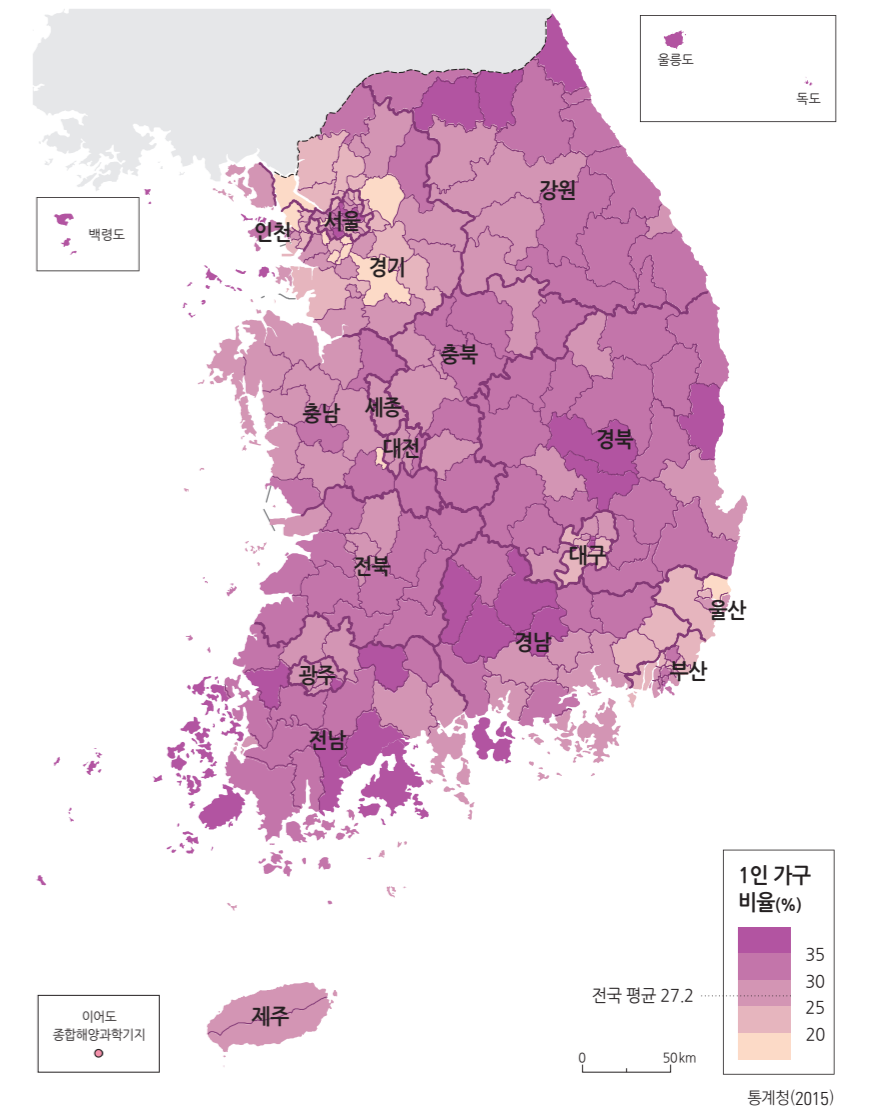
단위 면적당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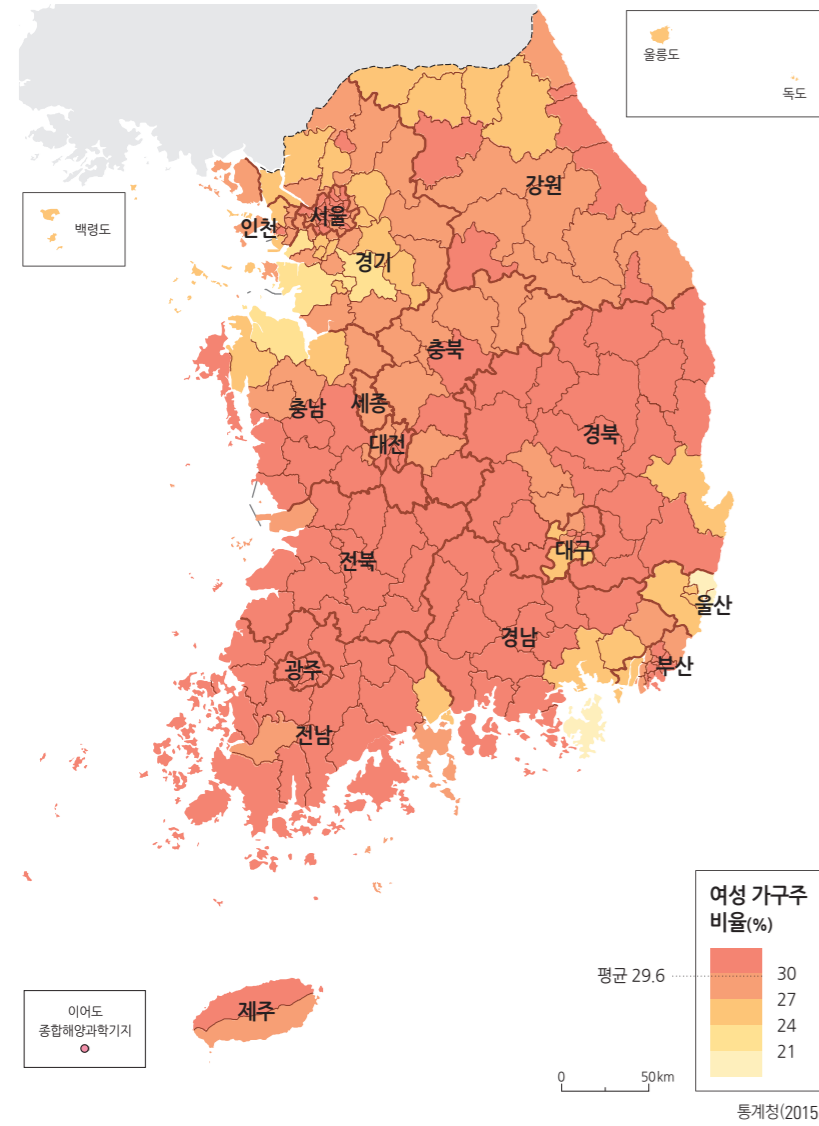
일반 가구의 세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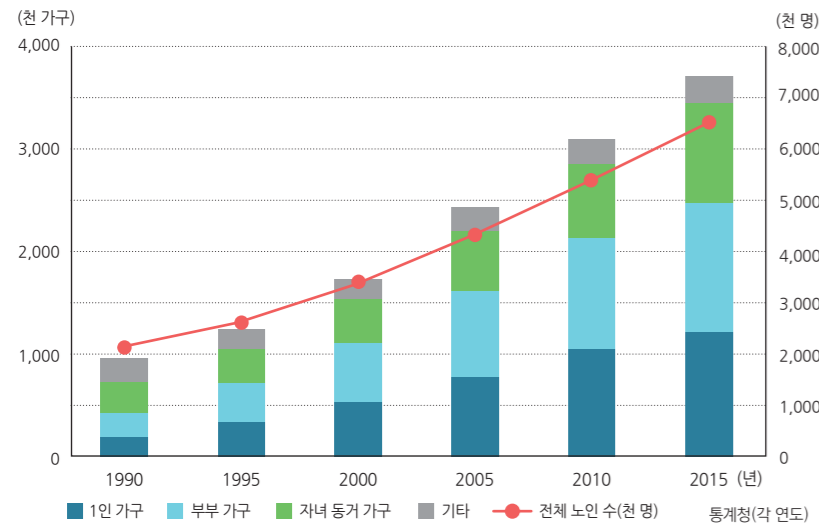
1인 가구 비율



여성 가구주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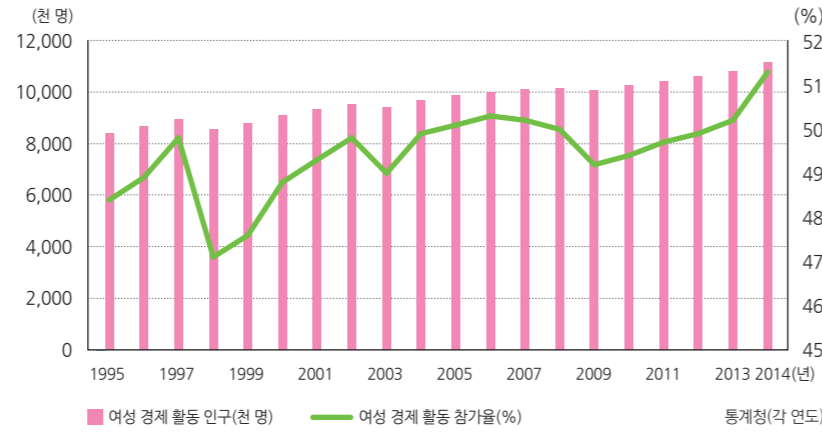
노인 가족 구성의 변화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65세 이상)는 1990년 216만 명에서 2015년 657만 명으로 20년 만에 두 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다. 노인들은 남편이나 부인과 사별한 경우가 많아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덜 외롭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노인 혼자서 살아가는 독거노인이나 혼자서 외로이 죽음을 맞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전국적 비율은 13.2%이며, 경북과 전남 등의 농촌 지역이 3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 반면 울산, 대전, 경북 구미 등이 6% 이하로 도시 및 공업지역이 낮은 비율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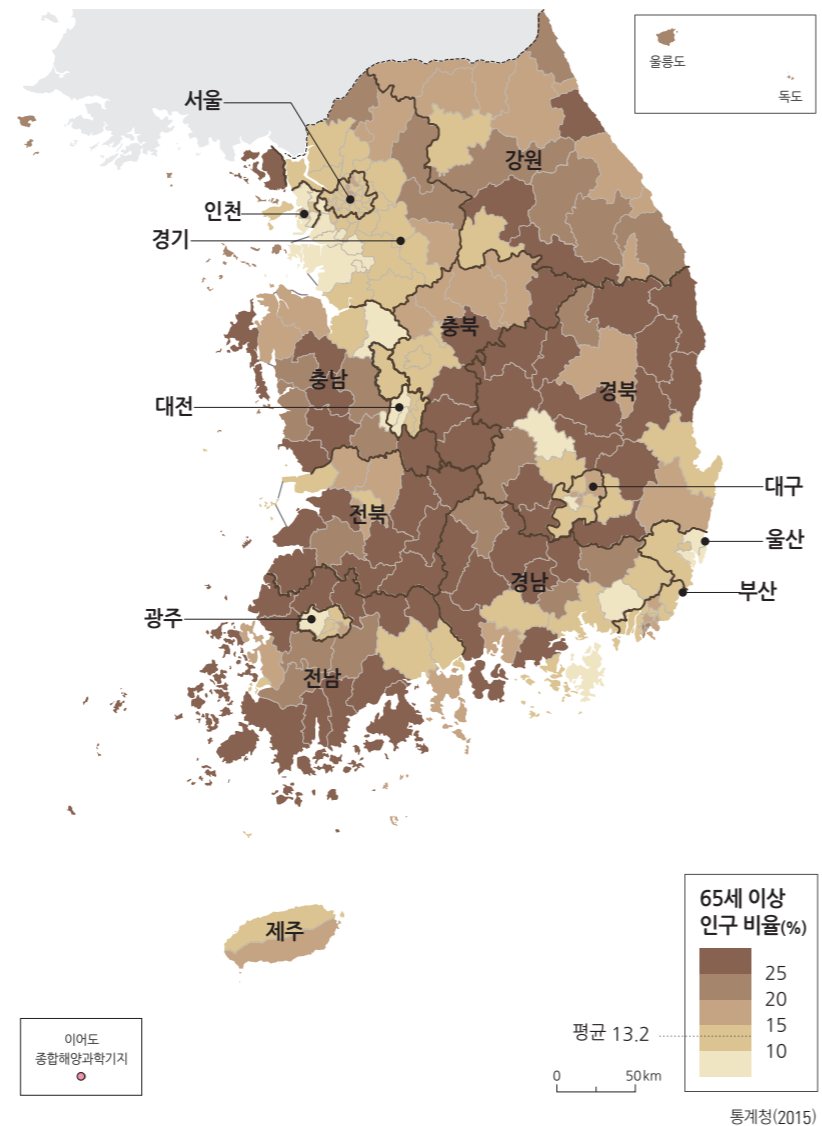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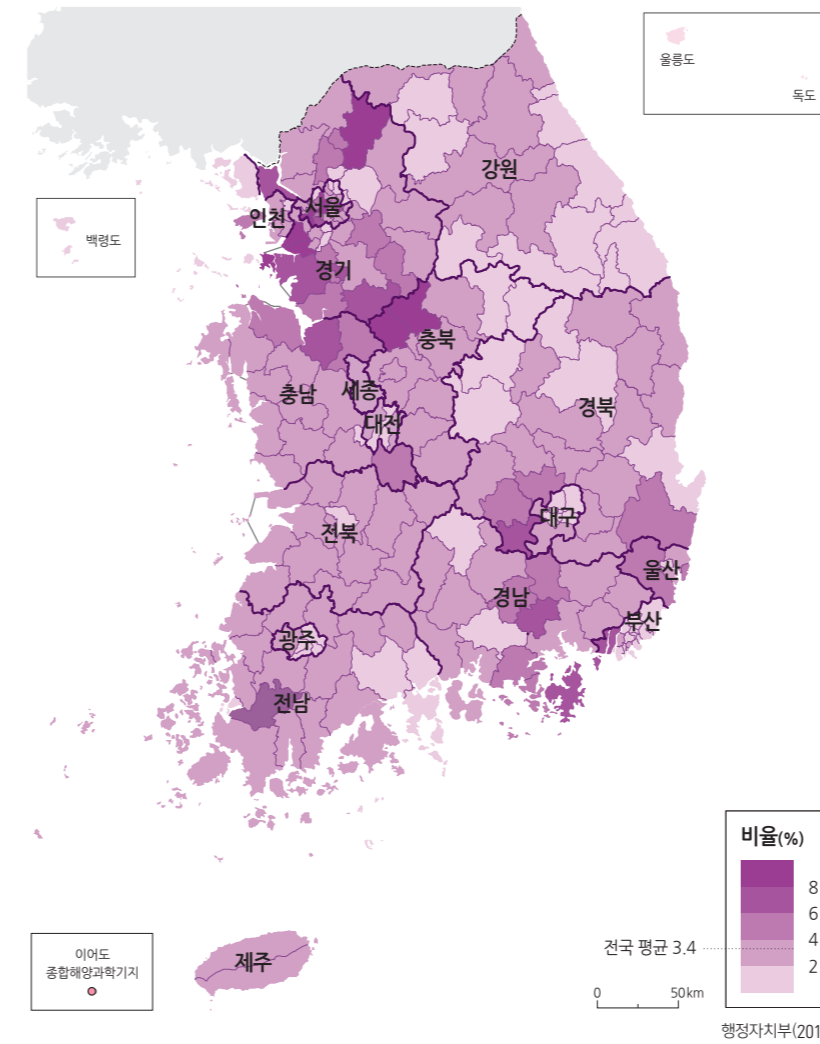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인구는 2,48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1%를 차지한다. 여성 가구주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다. 여성 가구주의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영남 및 호남권에서 비율이 높고 공업 지역 및 수도권에서 낮다. 여성의 교육 수준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다. 대학 이상 고등 교육을 받는 여성의 비율은 2010년 27.6%이며, 대도시 지역이 높고, 농촌 지역이 낮다.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은 만 15세 이상 여성 중 경제 활동 인구의 비율(%)로 1995년 48.4%에서 2014년 51.3%로 정체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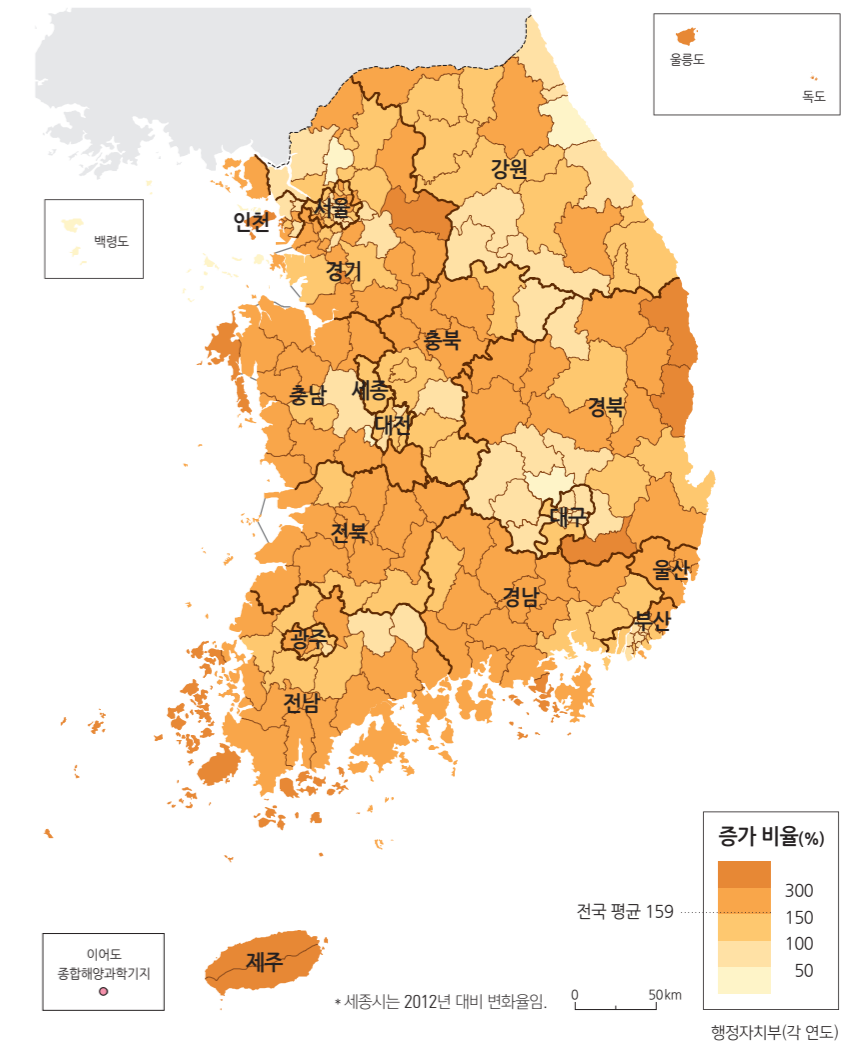
65세 이상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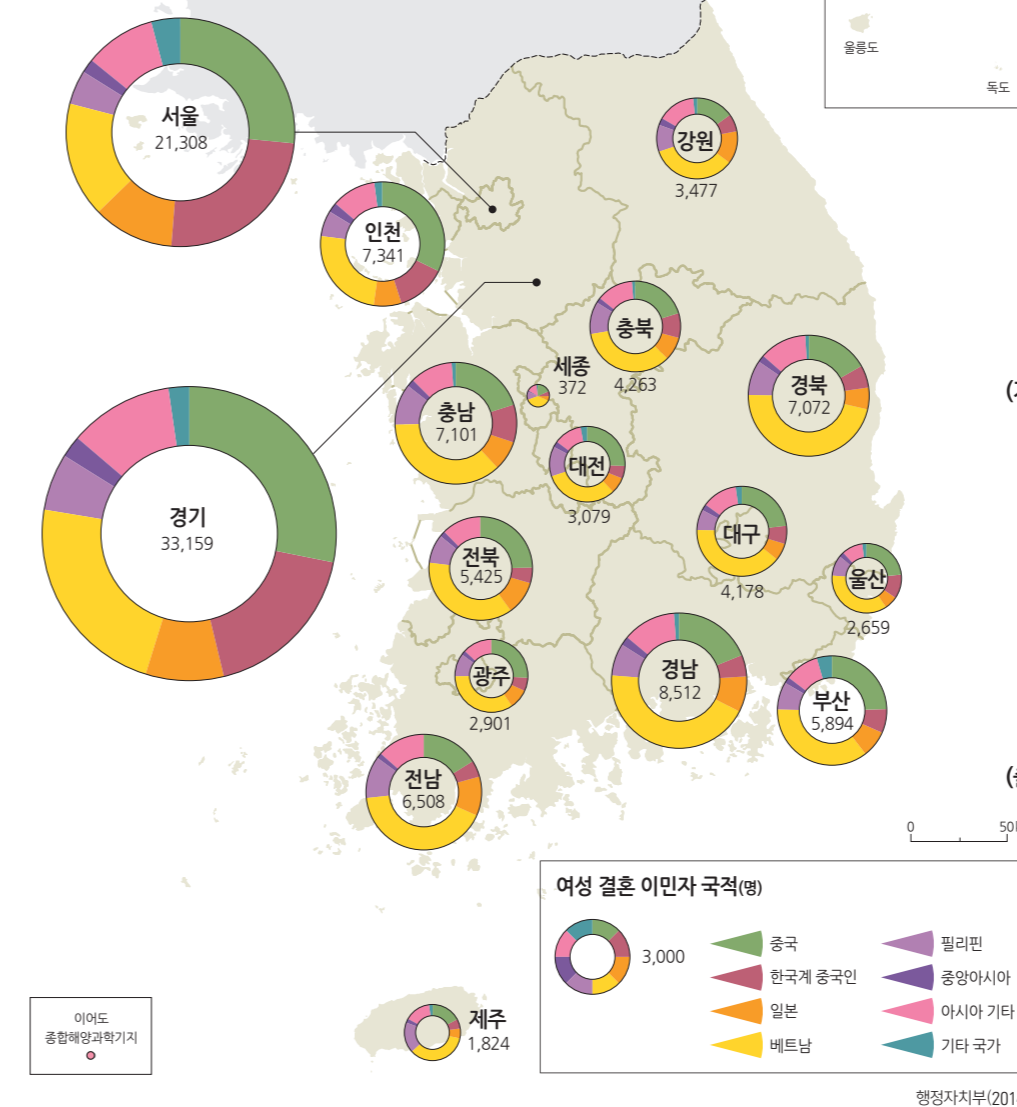
외국인 주민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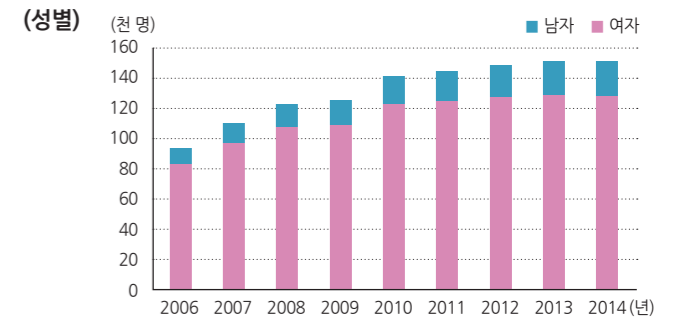
외국인 주민 증가율(2006 -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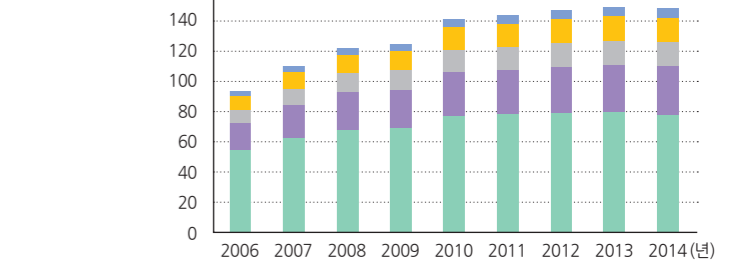
여성 결혼 이민자 국적



결혼 이민자 추이



(거주 지역별)



(출신 국가별)

